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 및 개성화와 정신의 순환: 수지비괘(일양오음괘)와 중지곤괘를 중심으로

이 현 구*

국문초록

수지비괘(水地比 ䷇ 8)는 하나의 양효와 다섯 음효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일양오음괘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일양오음괘는 하나의 양을 의미하는 의식과 다섯 음으로 나타나는 무의식의 관계와 역동을 상징한다. 일양오음괘는 초효에서 시작하여 상호에 이르기까지 그 양효의 위치에 따라 여섯 개의 다른 괘의 모습을 갖는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의식의 자리에 따라 정신의 내용이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양효의 움직이는 그 진행 과정을 통해 정신적 에너지의 흐름도 살펴볼 수 있다. 즉, 일양오음괘의 시작인 첫 번째 지뢰복괘(地雷復 ䷗ 24)의 정신적 내용이 순차적으로 진행하다가 그 최적의 자리인 다섯 번째 수지비괘(水地比 ䷇ 8)를 거쳐 마지막 여섯 번째인 산지박괘(山地剝 ䷖ 23)의 과정을 거쳐 가게 된다.

다시 말해 양효 하나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괘와 해당 효사의 내용은 일정한 정신적인 흐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회복하여 처음 시작하는 복괘는 의식의 시작이며, 이후 이효, 삼효, 사효 등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의식의 흐름을 나타낸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리인 비괘 오효에서는 그 정점에 이르게 되어 의식의 최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자연과 동일하게 정신도 최고의 상태에서 점차 하락의 길로 들어서는데 그것이 마지막 여섯 번째인 박괘 상호에 이른다. 그런데 모든 것이 떨어져나가는 박괘의 상호는 효사에 다시

접수일 : 2023년 3월 30일 / 심사완료 : 2023년 6월 8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6월 23일

* 玄同분석심리연구소

Address for correspondence: Hyeon-GU Lee, Ph.D., Hyeon-Dong Analytical Psychology Center, 108 New Seoul Apartment, 64, Miseong 10-gil, Gwanak-gu, Seoul 08866, Korea

Tel: +82-2-859-1312, E-mail: lbruno825@gmail.net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을 이어받는 것이 복괘의 초효이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힘든 우울의 상태에서 회복의 단계로 바뀌는 정신의 순환(circumambulation)을 의미한다.

이런 순환 과정에서 지나가야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중지곤괘(重地坤 ䷁ 2)이다. 절기상 음력 9월인 박괘와 11월인 복괘 사이에 10월의 곤괘가 놓여 있다. 이것은 회복과 치유의 흐름에는 반드시 곤괘의 모성적 과정을 거쳐야함을 뜻한다. 정신의 재생에 심리적 자궁으로의 후퇴는 필연적인데 박괘, 곤괘, 복괘로 이어지는 흐름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곤괘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더불어 비괘를 비롯한 일양오음괘는 그 본체 역시 여섯 음효로 이루어진 곤괘이다. 즉, 여섯 개의 일양오음괘는 모두 곤괘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일양오음괘 양효들과 그에 상응하는 곤괘 음효와의 상관성을 살펴봄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여섯 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의식의 상태와 연결되는 모성적 무의식의 역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양오음괘는 각각 모성 원형과 의식의 통합에 대한 표현을 상징한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일양오음괘의 괘상의 의미이다. 그것의 괘상은 어머니를 상징하는 곤(坤 ䷁)과 아들을 의미하는 장남의 뇌(雷 ䷏), 중남의 감(坎 ䷜), 차남의 간(艮 ䷳)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 양효의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지뢰복(䷗), 지수사(䷆), 지산겸(䷊), 뇌지예(䷏), 수지비(䷇), 산지박(䷖)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의식의 진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머니와 아들의 결합을 의미하는 일양오음괘들은 모성적 무의식과 의식의 진전되는 관계를 표상한다. 또한 아들의 위치에 따른 어머니와의 관계는 의식의 태도에 대한 모성의 역동과 연관이 된다. 이런 일양오음괘 여섯 괘의 흐름에서 심리적인 의미를 연역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의식의 활성화가 가장 정점인 상태가 비괘 오효에 해당하고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곤괘 오효의 내용을 비교하면 의식과 모성적 무의식의 통합의 상태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흐름 전체가 개성화 과정에 비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심 단어 : 수지비괘; 개성화; 모성적 무의식; 의식; 정신의 순환.

들어가는 말

1. 선행 연구

《주역》은 오래된 경전으로 이를 처음 해석한 글은 바로 《주역》에 포함된 〈역전〉이다. 〈역전〉은 전통적으로 공자를 위시한 유가들의 의견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핵심 내용인 도(道)라는 개념은 공자의 글인 《논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도가(道家)를 대표하는 노자와 장자의 글인 《도덕경》이나 《장자》에서 즐겨 사용되고 있다. 동시에 〈역전〉에서 인용하는 개념인 음양(陰陽)도 고대의 음양가가 있어 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첫 주석서인 〈역전〉은 유가(儒家), 도가(道家) 등 여러 학파의 관점이 담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후 정이천(程伊川)은 상수역학(象數易學)의 해석 방식에서 벗어나 의리역학(義理易學)의 입장에서 《역전(易傳)》을 저술하였다. 그는 괘상과 괘효사를 통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기를 주장하였다. 그 결과 그는 《역》의 사회·정치적 독해를 피한 ‘의리역’의 해석 방식으로써 왕 필(王弼)을 계승하고 주희(朱熹)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어서 주희는 《주역본의(周易本義)》 12권, 《역학계몽(易學啓蒙)》 1권을 저술하여 정 이천의 설을 보충하는데 있어 ‘점서(占書)’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자신의 철학에서 주지적인 이론, 궁리적(窮理的)인 논증, 고전의 권위를 성실히 받드는 것을 중시했는데, 특히 공자와 그의 후계자인 맹자를 존경했다. 그는 우주가 형이상학적인 무상(無象: 형체가 없는 것)과 형이하학적인 유상(有象: 형체가 있는 것)의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무상은 본연의 ‘이’로서 태극(太極)이라고도 하며 만물이 생겨나는 본체이다. 따라서 그는 이(理)를 중심으로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다. 그는 마음의 경지를 도학으로 끌어올리려고 시도했고 이것이 그의 주역관(周易觀)이다.

한편 불가(佛家)의 입장에서 《주역》을 이해한 것이 승려였던 지옥(智旭)의 《주역선해(周易禪解)》이다. 여기에서 그는 본성과 수행에 차이가 없음, 즉 성수불이론(性修不二論)을 《주역》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불교의 수행 방법을 성명쌍수(性命雙修)에 연결시킨 내용이다. 또한 《주역》을 도가의 단전 수련의 교과서로 인용해 만든 것이 위백양(魏伯陽)의 《주역참동계

(周易參同契)》이다. 그는 여기에서 《주역》의 원리와 마음 및 육체의 수련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 또한 성명쌍수의 기본적인 원리를 주장하면서 대표적으로 건곤감리(乾坤坎離) 네 괘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¹⁾

반면 조선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관점을 벗어나 고유한 입장을 주장한 정약용이 있다. 그는 《주역사전(周易四箋)》에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업적인 주역해설 방법에 대해 논한다. 여기에서 그는 14벽괘설이라는 독특한 괘변설(卦變說)을 전개하였고, 조선의 독자적인 효변법(爻變法)을 개발함으로써 주역에서 효변을 일종의 해결의 열쇠(master key)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그만의 고유한 관점을 인정받았다.

현대 들어서 《주역》을 연구한 김충열은 동양철학의 세 축인 유(儒)·도(道)·불(佛)을 아우르면서도 전통적인 ‘통유(通儒)’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무엇보다 중국 철학을 서양 철학적 개념과 논리가 아니라 동양철학 본연의 시각에서 연구하였다. 특히 《주역》에 대해서는 “손·익괘의 논리와 교훈”,²⁾ “易의 宇宙觀, 性命觀 그리고 文化觀”,³⁾ “伊川易이 오늘날 왜 필요한가?”⁴⁾에서 자신의 주역에 대한 관점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주역》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을 수용하여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주역》을 인간역(人間易)이라고 말하면서 의리역학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다. 또한 이정호는 《주역》에서 논거를 발굴하여 “정역(正易)”을 복희역, 문왕역의 뒤를 이은 제3의 역이며 미래의 역으로 규정한다. 그의 역학관의 근간은 三易論이고 後天易이다. 기존의 복희 선천역 문왕 후천역을, 문왕 선천역 一夫 후천역 또는 후천의 후천역으로 본다. 그의 역학의 핵심은 역시 자연과 세상의 變易이고 장차 到來할 變易에 대한 인간의 對備로서의 가치관의 변동이다.⁵⁾

근래 《주역》과 분석심리학을 연결하여 연구한 논문으로는 이주현, 이부영의 “주역 점(占)의 실제 체험-죽음, 신 그리고 사랑: 아버지의 영전(靈前)에서”⁶⁾

1) 임명진 (2010): 《周易參同契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대전.

2) 김충열 (1997): “손·익괘의 논리와 교훈”, 《주역연구》, 2, pp19-32.

3) 김충열 (1999): “역의 우주관, 성명관 그리고 문화관”, 《주역연구》, 3, pp3-21.

4) 김충열 (2000): “伊川易이 오늘날 왜 필요한가?”, 《주역연구》, 5, pp11-31.

5) 박신환 (2006): “鶴山 李 正浩의 易學 思想”, 《동양철학》, 26, pp55-77.

6) 이주현, 이부영 (2022): “주역 점(占)의 실제 체험-죽음, 신 그리고 사랑: 아버지의 영전(靈前)에서”, 《심성연구》, 37(2), pp149-183.

가 있다. 여기에서 주 저자는 선친의 선종에 즈음하여 《주역》과 자신의 꿈에 대한 깊은 체험을 하였음을 설명한다. 또 다른 논문으로, 《주역》과 분석심리학을 비교 연구한 것들이 있다. 신성수는 “주역의 미래예측(未來豫測)과 시공간 인식—분석심리학의 동시성이론과 관련하여—”⁷⁾를, 신성수와 이현구는 “주역(周易)의 분석심리학적 이해-건괘(乾卦), 곤괘(坤卦)를 중심으로-”,⁸⁾ “주역과 분석심리학의 鍊金術-곤(困)·정(井)·혁(革)·정(鼎)괘를 중심으로-”,⁹⁾ “분석심리학의 동시성원리와 주역의 통(通) 개념”,¹⁰⁾ “주역(周易)과 분석심리학의 원형(原型, Archetype)”¹¹⁾을 서술하면서 다양한 면에서의 연결점을 살펴보았다. 이현구는 『周易과 분석심리학의 상관성 연구: 道의 실현과 개성화 과정을 중심으로』¹²⁾를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주제로 들어가면, 수지비괘를 중심 주제로 연구한 논문으로는 이진영의 “주역 수지 비괘(水地比卦 ䷇)와 맹자 왕도 정치론의 관련성 연구-주역전의대전(周易傳義大全)을 중심으로-”¹³⁾가 있다. 이것은 왕-신하-백성 사이의 세 정치 주체에 입각한 맹자의 왕도 정치를 서술한 글이다. 왕이 먼저 친히 나서고 백성이 이에 응한다는 것을 과사와 효사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다음에는 수지비괘를 전체 주제의 일부분으로 언급하는 논문으로 권호용의 “주역(周易) 구덕괘(九德卦)의 원의(原義) 분석”¹⁴⁾이 있다. 이는 <계사대전> 7장의 구덕괘(九德卦)를 복희 팔괘와 문왕 팔괘의 입장에서 분석한 글이다. 여기에서는 복희 팔괘의 리(離)와 감(坎)을 적용한 후, 덕(德)을 중심으로

7) 신성수 (2016): “주역의 미래예측(未來豫測)과 시공간 인식-분석심리학의 동시성이론과 관련하여-”, 《동방문화와 사상》, 1, pp67-90.

8) 신성수, 이현구 (2013): “주역(周易)의 분석심리학적 이해-건괘(乾卦), 곤괘(坤卦)를 중심으로-”, 《비교 문화연구》, 31, pp119-153.

9) 신성수, 이현구 (2013): “주역과 분석심리학의 鍊金術-곤(困)·정(井)·혁(革)·정(鼎)괘를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16, pp122-153.

10) 신성수, 이현구 (2015): “분석심리학의 동시성원리와 『주역』의 통(通) 개념”, 《철학·사상·문화》 19, pp79-108.

11) 신성수, 이현구 (2014): “주역(周易)과 분석심리학의 원형(原型, Archetype)”, 《인문학연구》 26, pp187-220.

12) 이현구 (2016): 《周易과 분석심리학의 상관성 연구-道의 실현과 개성화 과정을 중심으로》, 동방문화 대학원대학교 박사 논문, 서울.

13) 이진영 (2022): “주역 수지 비괘(水地比卦 ䷇)와 맹자 왕도 정치론의 관련성 연구-주역전의대전(周易傳義大全)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89, pp129-159.

14) 권호용 (2017): “주역(周易) 구덕괘(九德卦)의 원의(原義) 분석”, 《동서철학연구》, 84, pp5-44.

‘덕의 작용’과 ‘덕이 향하는 방향’으로 괘를 구분하였는데 수지비괘는 복희 팔괘의 감(坎)과 리(離)에 연결시키면 그 결과로 ‘덕의 작용’에 해당하게 된다. 이어 김학권은 “이형상(李衡祥)의 일상적(日常的) 도덕규범(道德規範)으로서의 역학(易學)”¹⁵⁾에서 《주역》의 여러 괘를 일상적 도덕규범의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수지비괘를 우애(友愛)의 도리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장영동은 《周易에 나타나는 ‘물’과 ‘茶水’의 상관관계 研究》¹⁶⁾를 통해 《주역》에 표현되는 물에 관계된 괘사와 여러 경전에서의 물에 대한 표현을 비교하였다. 그 여섯의 물과 관계된 괘를 각각 설명하는데 그중에서 수지비괘를 親親愛愛라고 이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명진은 《茶山易學의 의학적 응용에 대한 연구: 14벽卦를 중심으로》¹⁷⁾에서 다산 정약용이 《주역》을 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내용을 다루었다. 괘를 인체의 생리와 병리의 관점으로 이해하였는데 그중 일양(一陽)괘의 의미에 중점을 두었다. 이 여섯의 일양오음(一陽五陰)괘에 대한 서술을 하면서 수지비괘는 그 다섯 번째로 그에 해당하는 신체적 상태와 그와 관계된 증상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논문들의 흐름 속에서 비괘를 중심으로 일양오음괘와 그 안에서의 음양의 순환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본 논문의 시도가 의미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본 논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기로 한다. 우선, 가장 합당한 태도는 논문을 쓰기 전에 《주역》 자신에게 묻는 것이라고 여겨 논문에서 무엇을 어떻게 써야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는 수지비괘(䷗ 8)의 5효가 변하여 중지곤괘(䷌)의 답을 얻었다. 비괘는 여덟 번째 괘로서 형이상 본체론을 표현하는 《주역》의 상경(上經)에 속한다. 특히 《주역》은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건곤괘(䷁ 1, ䷁ 2)로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 그 출발은 물을 의미하는 세 번째 괘인 수뢰둔괘(䷆)로 그 두 괘를 이어받는다. 이처럼 『주역』에서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수지비괘도 그 중의 하나이다.

15) 김학권 (2014): “이형상(李衡祥)의 일상적(日常的) 도덕규범(道德規範)으로서의 역학(易學)”, 《공자학》, 27, pp149-177.

16) 장영동 (2010): 《周易에 나타나는 ‘물’과 ‘茶水’의 상관관계 研究》,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익산.

17) 임명진 (2005) : 《茶山易學의 의학적 응용에 대한 연구: 14벽卦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 학위 논문, 대전.

비괘(䷗)의 구성은 물(☵)과 땅(☷)의 조합으로 되었다. 땅은 음효(陰爻)로만 이루어진 모성을 의미하고, 물은 하나의 양효(陽爻)와 두 음효의 결합인 아들을 뜻한다. 아들과 어머니의 만남을 상징하는 비괘는 이 둘의 역동이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어머니에게서 생겨난 아들은 첫 여성으로서 어머니를 대하게 되며, 어머니는 아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때 의식을 상징하는 아들의 무의식을 의미하는 어머니에 대한 태도에 따라 정신적인 내용이 형성된다.

또한 비괘는 하나의 양과 다섯의 음이 만나 형성된 일양오음괘 중의 하나이다. 일양오음괘는 의식의 태도에 따른 정신의 역동 및 그 진행 과정을 표현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양효가 초효에서부터 상효까지 이어지는 괘의 형상으로 드러난다. 이것들은 양효의 순서대로 지뢰복괘(地雷復 ䷗), 지수사괘(地水師 ䷆), 지산겸괘(地山謙 ䷎), 뇌지예괘(雷地豫 ䷏), 수지비괘(水地比 ䷇), 산지박괘(山地剝 ䷖)이다. 그런데 이 각각의 괘는 그 근본 자리가 모두 중지곤괘(䷌)이기에 순서에 입각한 그 효(爻)의 자리마다 고유한 상관관계와 발전 단계를 확인함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 안에서 살펴봄이 그것이다. 결국 수지비괘 5효는 양이 최적의 자리에 위치한 것인데 이런 내용이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찾는 것이 이 글의 방향이 된다.¹⁸⁾

아울러 본 논문에서의 기본적인 전제를 알아보려고 한다. “한대(漢代)에 쓰여진 중국 최초의 자전인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의하면 음양(陰陽)의 원형은 숲과 昷이다. 숲은 해가 구름에 가려 어두움을 상형한 글자이고 昷은 해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로 높이 떠서 사방을 밝게 비추는 것을 상형한 글자라고 한다.”¹⁹⁾ 상징적으로 빛은 의식을 상징하고 어둠은 무의식을 의미한다. 융은

18)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저자인 리하르트 빌헬름은 독일인으로 중국에 선교사로 생활하면서 여러 고대 중국 문헌을 번역하고 중국 철학 서적을 출판하였다. 그는 이에 대해 깊은 식견을 갖게 되었으며 동시에 심층심리학적인 이해가 있다. 반대로 알프레드 황은 중국 태생으로 오랜 동안 본토에서 주역을 공부하였고 미국에 이주하여 연구를 이어갔다. 그는 상수역학과 의리역학에 균형 잡힌 관점을 갖으며 저술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김석진은 평생을 오직 주역 연구에 매진하였고 이를 체득하여 대중과 공유하려 노력하였다. 그의 제자 신성수는 스승의 학풍을 이어받되 현대인의 입장에서 주역을 재해석하면서 이론과 현실에 그 내용을 접합시키는 여러 논문과 저술을 하며 그 일에 진력하고 있다.

19) 임채우 (2006): “陰陽관계론에서 본 여성관-男尊女卑論의 易學的 근거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84, p140.

“어둠을 무의식에 연결시키고, 빛을 의식의 상징적 등가물이며 의식의 본성은 빛”²⁰⁾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양의 성질에 해당하는 양효(-)는 의식을, 음에 기반을 두는 음효(--·)는 무의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모두 음효로 이루어진 중지곤괘(䷛)는 무의식을 대표하며, 일양오음괘인 수지비괘(䷗)는 다섯의 무의식과 함께하는 의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수지비괘(水地比 8 ䷗)의 상징적 의미

비괘의 뜻은 《주역》 비괘 <단전>의 “비는 돕는 것이니”(比輔也)라고 표현되듯이 ‘서로 돕는 것’이다. 알프레드 황(Alfred Huang 1921-)은 “비괘는 친밀감(intimacy)과 가까움(closeness)을 시사한다. 함께 사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친밀하고 가깝게 된다. 반면 빌헬름(Wilhelm 1873-1930)은 이 괘를 함께 모임, 연합(Holding Together, Union)으로, 블로펠드(Blofeld)는 통합(Unity) 또는 협동(Coordination)으로 번역하는데 이 책에서는 비괘를 연합(Union)으로 부른다.”²¹⁾고 하였다. 더불어 그는 “고대 중국에 비(比)는 가족 등록 체계의 근본 단위였다. 모든 다섯 가정은 하나의 단위를 형성했고 그것을 比라고 불렀다. 모든 比는 대표가 지정되어 이웃을 돌보게 되었다. 그렇듯이 比는 또한 이웃을 의미하고 공동체 안에서 사람 사이의 긴밀한 유대를 상징한다.”²²⁾고 하였다.

한편 모성성이 드러나는 ‘돕는다’의 사전적 의미는 ‘1)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을) 잘되도록 힘을 보태다. 2) (사람이나 단체가 다른 사람을) 보살피거나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 주다. 3) (무엇이 어떤 상태나 작용 따위를) 좋아지도록 증진시키다.’²³⁾라고 한다. 이것을 앞의 설명과 연결시키면 마을 공동체 안에서의 역동이라고 할 수 있다. 상징적으로 이것은 개인의 정신 영역 안에서 하나의 망으로 소통하는 콤플렉스들 사이의 원활한 관계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추상적인 ‘비(比)’라는 체계 안에서 건강하게 유기적인 소통을 하는

20) Jung CG (1983): CW13, *Alchemical Stud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20, 23.

21) Huang A (2010): *The Complete I Ching*, Inner Traditions, Vermont, p95.

22) Huang A (2010): 앞의 책, p95.

23) 인터넷 다음Daum 국어사전, 검색어: 돕다.

데 이것은 서로의 무의식적인 자발성이 활성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러 정신 요소들 사이에서 통합의 성공적인 예를 융은 이렇게 설명한다. “내적인 통일성 또는 통일 체험의 가장 강한 표현들(Unio mystica, 신비적 합일)은 우리 유럽의 신비가들과 무엇보다도 인도의 종교와 철학에서, 또한 중국 도교 철학에서, 그리고 일본의 선(禪, Zen)에서 발견된다.”²⁴⁾ 이것은 개인의 무의식이 살아나 그 기능이 최고도로 작동하는 단계이고, 의식 또한 그런 무의식에 합당한 태도를 견고하게 갖추고 있는 상황을 일컫는다. 이렇게 비괘는 상징적으로 여러 정신 요소들의 통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연금술의 융합 과정과 연결이 된다. “그러므로 융합의 관념은 한편으로는 화학적 결합의 알 수 없는 비밀을 밝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화소(神話素, Mythologem)로서 대극 합일의 원형을 표현하며 그로써 신비적 융합 unio mystica의 상(像)이 되었던 것이다.”²⁵⁾ 대극은 서로 반대되는 것을 뜻하는데 《주역》의 기본 원리는 음양 대극의 상호 역동으로 형상화된다. 그 역동은 그 둘인 음양 사이의 위치와 대소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것이 64괘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비괘도 그 범위에 포함되는데 그 관계 양상은 비괘의 특성처럼 상당히 건강하고 긍정적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음양이 상징적으로 의식과 무의식을 의미한다면, 개인의 정신이 비괘의 상황에 놓임은 그 둘의 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런 대극 통합의 원활함을 보여주는 것이 비괘의 내용이다. “비(比)의 고대 한자어는 간단하다. 그것(𠄎)은 두 사람이 함께 가까이 서 있음을 보여준다.”²⁶⁾ 이것은 공존을 말한다. 그 모습에서 대등한 정신적 주체는 지향하는 바가 동일함을 드러내고 있다. 개인의 심리는 항상 대상을 두고 유지된다. 그 내용이 그 자신의 그림자이든, 여성성 혹은 남성성이든, 아니면 집단적 대상이든, 더 나아가 정신 전체를 조율하는 자기(Self)이든, 의식은 이러한 무의식을 대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비괘에 담겨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비괘는 그 상황에서 의식과 무의식 모두가 적합하게 상응하여 그 자신만의 고유함인 개성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4)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4): C.G. 융 기본저작집 제3권, 《인격과 전이》, 솔출판사, 서울, p345.

25) Jung CG (2004): 앞의 책, p173.

26) Huang A (2010): 앞의 책, p95.

반면 두 정신 내용의 결합을 뜻하는 ‘비’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로 하자. 비(比)괘의 글자는 비(匕)가 중복되어 표현된 것인데, 이 단일한 비(匕)는 문자의 형성 과정에서 사람을 뜻하는 인(人)과 더불어 그 독특한 배경이 있다. “일반적으로 문자의 응용에서는 본의(本義)를 제외하고 자의(字義)의 확장인 인신(引申:한자의 형성에서 의미 파생의 방법으로 연상 작용에 근거해서 단어의 의미가 늘어나고 확장되는 것)과 가차(假借: 본래 그 글자가 없어 소리에 의거해 개념을 빌려서 표현한 것. 그 핵심은 발음이 같거나 비슷한 동음이의어)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더욱이 《설문(說文)》의 전주(轉注)가 가장 자주 쓰이는 인신(引申)의 방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혹은 이 인신(引申)에 몇몇 소수의 글자는 기타 다른 문자 분석의 방법을 통해 창조된 것이 감안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인(人)을 반대로 쓰면 비(匕)가 된다든지… 등과 같은 유형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²⁷⁾ 여기에서 비(匕)는 인(人)의 내용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입장에서 접근한 정신적 결과물의 표현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 방법이 반대이기에 서로가 대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것은 의식과 무의식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고문자(古文字) 형식에는 일정한 규칙이 없었으므로,… 진(秦)나라가 문자를 통일하기 전까지만 해도 춘추시대(春秋時代)나 전국시대(戰國時代)의 각 나라는 각기 서로 독립적인 문자를 사용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간단한 증거로 사람이 측면으로 서 있는 모습의 ‘인(人)’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인(人)에 보이는 자형 형태의 변화는 그림에 예시된 것과 같이 십여 종 이상의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²⁸⁾ 그런데 인(人)에 대한 고문자의 그 그림에서 대부분이 두 선의 합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해는 대극이 통합되어있음과 밀접히 연결되어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인(人)의 문자 안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 인간 본연의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비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나아가 “그러므로 상대(商나라 시대)에서는 이세대(二世代) 이상 되는 사람을 남자는 조(祖)라 하였고, 여자는 비(妣)라 하였다. 갑골문의 𠂇(조, 祖)자는

27) 허진웅, 조용준(역) (2012): 《중국문자학강의》, 고려대학교 출판부, 서울, p144.

28) 허진웅, 조용준(역) (2012): 앞의 책, p484.

초형(初形)은 저(且)로 남자 생식기의 상형이다.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은 이미 여자에게 아이를 갖게 하는 근원을 명백하게 표시하고 있다… 갑골문의 비(妣)는 원형이 비(匕)로 열쇠의 상형이다.”²⁹⁾ 이와 더불어 비(匕)와 비(妣)의 글자 모습을 같이 언급하며 “열쇠의 상형, 가차(假借)되어 여성 선조가 되었다.”³⁰⁾ 하였다. 여기에서 ‘비’는 생명의 창조를 만들어가는 핵심으로서의 여성성의 뿌리와 연결됨을 말하고 있다.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드러내는 표현인 ‘비’의 그 근본에는 원초적 모성성이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는 새로운 의식을 창조한다는 가능성을 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듯 비괘가 지향하는 뜻은 의식 위주의 관점을 보상하는 무의식의 모성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에 있다. 결국 비괘는 의식에게 무의식으로부터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의식과의 통합에서도 그것이 근본적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비괘의 배경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면 비괘의 대극 통합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비괘는 아들을 품는 어머니의 형상을 갖기에 여기에 어머니는 아들의 변환을 위한 연금술의 그릇 역할도 포함된다. 이런 어머니의 희생은 사랑으로 자신의 가슴의 피를 뿌려 자식을 키우는 연금술의 펠리칸과 맞닿는다. 용은 이에 대해 “거기에는 우월과 열등, 외부와 내부로 이루어진 사위성(quaternion)이 있다. 그것들은 펠리칸이라 불리는 동그란 증류기에 의해 하나의 물건으로 융합된다. ‘모든 것을 하나의 원이나 그릇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라.’ 왜냐하면 이 그릇은 진실한 철학자의 펠리칸이기 때문이다. 그 외의 어떤 것도 세상에서 찾아지지 않는다.”³¹⁾고 말한다. 이어 그는 이를 중심과 주위의 원의 도표로 설명하면서 중앙이 주변 내용을 융합하는 내용도 표현한다. 그러면서 이런 순환에 펠리칸이 핵심적 역할을 함을 강조한다. 이 펠리칸은 본 논문에서 어머니에 해당하는 땅과 연결이 될 것이다. 동일하게도 땅은 그릇으로서 중심에 있으면서 그 순환 과정의 실제 주된 역할을 한다. 앞의 도표도 동양 철학의 오행 사상에서 흙(土)이 중앙에 있으면서 나머지 네 요소들이 순행하여 치유 받고 재생되는 그림과도 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인 흙의 펠리칸과 같은 상징성이

29) 허진웅, 홍희(역) (2003): 《중국고대사회》, 동문선, 서울, p383.

30) 허진웅, 홍희(역) (2003): 앞의 책, p393.

31) Jung CG (1989): CW14, *Mysterium Coniunction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11.

이 글에서의 중요한 한 측면이기도 하다.

수지비(水地比 ䷗): 의식인 아들(☵)과 모성 원리인 어머니(☷)의 통합

비괘(䷗)는 그 본체가 곤괘(䷎)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비괘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인 곤괘를 먼저 살펴보아야함이 합당하다. 곤괘의 특성은 그 괘사에 표현되어있다. 거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암말인데 이것은 건괘(䷗)가 용으로 표현되는 것과 비견된다. 즉, 음의 특성은 말 양의 그것은 용으로 상징되는데 무의식은 말의 본능적 속성에 그리고 의식은 용의 정신적 가치에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말에 대해 용은 “동물로서 말은 비인간적인 정신, 인간 이하의 동물적 측면, 무의식을 나타낸다. 그것은 말이 민담에서 때때로 환영을 본다든지 목소리를 듣고 말을 하기 때문이다. 운송 수단으로서 말은 모성 원형과 연결된다. 인간 보다 아래에 있는 동물로서 말은 육체에서 나오는 동물적 충동과 신체의 아래 부분을 의미한다.”³²⁾고 하였다. 모성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 상징성은 곤괘의 특징인 암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그 내용은 본능적 차원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능은 생명체가 자신을 유지하려는 기본적 힘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그 자체로 무의식적이지만 그것 안에는 나름의 합목적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곤괘의 모성적 상징 안에 포함된다.

한편 곤괘는 모두 음효로 구성되면서 모성을 대표하는 괘이다. 음효를 무의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괘는 모성의 특성을 지닌 무의식의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는 또한 무의식이면서도 우리의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삶을 의미하며 생리학적인 영역인 우리가 거주하고 포함되는 육체를 뜻하기도 한다.”³³⁾는 용의 관점과 합치된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어머니로서 모든 것이 그곳으로부터 생겨나는 곤괘는 무의식의 창조성을 지니면서 이는 의식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된다. 이렇게 무의식

32) Jung CG (1985): CW16,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159.

33) Jung CG (1985): 앞의 책, p158.

에서 새롭게 형성된 의식은 상징적으로 음의 영역에서 양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에 비유되는데 곤괘에서 하나의 양효로 변한 비괘가 등장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한편 비괘(䷗)는 상괘가 물(水 ䷜), 하괘가 땅(地 ䷁)으로 형성되었다. 땅이 아래에서 위에 있는 물을 받쳐주고 있는 형상이다. 우선 땅에 대한 상징성을 알아보자. “마치 그리스도를 낳은 성처녀 마리아가 대지(땅)인 것처럼 세멜레 자신도 오래된 대지(땅)의 여신이었던 것 같다… 심리학은 대지(땅)와 물질의 관계를 모성 원형의 불가결한 특성으로 여긴다.”³⁴⁾고 융은 말한다. 모성의 중요한 상징 중의 하나인 땅은 한편으로 생명을 품어주고 길러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생명을 거두어가는 모성의 특성을 지닌다. 인간의 실존적 삶이 영위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땅이다. 또한 인간의 문화가 형성되면서 정신적 내용을 담으면서 실체화시킬 수 있는 이유도 땅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듯 땅은 상징적인 차원에서 어머니로서 인간을 담아준 그릇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또한 그릇으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드러난다. 이 그릇은 앞서 언급했던 ‘펠리칸 그릇(vas pellicanicum)’ 또는 ‘진정한 철학적 펠리칸’과 연결된다. 융은 “이것은 라피스(lapis) 그 자체이고 동시에 그것을 포함한다. 즉, 자기(self)는 그 자신의 그릇(container)이다. 이 공식은 그 스스로 집어삼키고 자신을 태어나게 하는 알이나 용에 라피스를 자주 비교함에서 생겨난다.”³⁵⁾라고 하였다. 그릇으로서 펠리칸은 우로보로스의 뱀처럼 그 자체로 새롭게 변환하는 주체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 더불어 모성적 그릇은 근본적으로 자궁의 형태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장소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삶이 시작하는 시원으로서 모체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의 고유한 내용을 살려내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 특히 담아주는 그릇의 재료가 흙이라면 그 의미는 더 구체적이다. 이 내용을 비괘 초효(初爻)에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 “초육은 믿음을 두고 도와야 허물이 없으리니. 믿음이 질그릇에 가득차면, 마침내 다른 길함이 있어 오리라(初六 有孚比之 无咎 有孚盈缶 終來有他吉)” 이에 대해 김석진은 “그 믿음을 주는 것이 질그릇에 가득할 정도가 되면 마침내 다른 데에

34)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2): C.G. 융 기본저작집 제2권, 《원형과 무의식》, 솔출판사, 서울, pp233-234.

35) Jung CG (1983): CW13, *Alchemical Studies*, p87.

서 길함이 있어 올 것이라고 했다. 질그릇(缶)이라는 것은 채색하거나 유약을 바르지 않고 순수하게 흙으로 빚어낸 그릇을 말하는데, 질박하고 순수한 마음을 의미한다.(有孚盈缶)³⁶⁾고 하였다. 아무 것도 가미하지 않은 본래 그 상태로 마음을 받아줄을 뜻하는 이 상태는 모성의 최고 가치를 드러낸다. 어머니는 생명 그 자체에 초점을 두지 그것에 옳고 그른 판단은 무의미하다고 여긴다. 무의식의 긍정적 모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비괘 초효의 이 설명은 비괘 전체를 반영하면서 그것의 하괘(下卦)인 땅(地 ䷁)의 상징을 나타낸다. 초효는 씨앗처럼 그괘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더불어 땅이 오염되지 않고 순수해야 그 믿음을 건강하게 살려낼 수 있다. 즉, 무의식의 상태가 자연 그대로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새로운 의식의 내용을 올바르게 꽃피울 수 있다.

동시에 땅은 연금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철학자(현자)가 말하듯이 ‘모든 형태 중 가장 단순하고 완벽한 것은 하나의 점에 근원을 두는 원(sphere)이다. 물질 안에 잠자고 있고 숨어있는 신의 이런 이미지는 연금술사들이 말했던 근본적 혼돈 또는 낙원의 대지(땅) 혹은 바다 안에 있는 둥근 물고기 아니면 알이거나 간단하게 둥근 것(rotundum)이다. 이 둥근 것은 물질의 닫힌 문을 여는 신비로운 열쇠를 소유하고 있었다.’³⁷⁾ 상징적으로 인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낙원에 있는 땅은 연금술사들이 찾고 싶어 했던 궁극의 목적을 상징한다. 즉, 땅 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인간 정신에 있어서 출발점이자 귀결처가 된다. 전체성을 담보하는 땅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품고 있지만, 반면 단순하면서도 활발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이 중심성은 모든 대상에게 열려있기에 관계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특성은 연금술에서 원질료의 내용과 맞닿는다. 이런 내용을 빌헬름은 비괘 초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근본적 성실함만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이다. 흙 그릇으로 상징되기에 그 안에 모든 내용을 담고 그 빈 상태가 무(無)를 나타내는 이것은 그 자체로 교묘한 말이 아니라 말하는 이 안에 내재된 힘으로 드러난다. 이 힘은 그렇게 커서 외부로부터 행운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다.”³⁸⁾

이렇게 땅의 연금술적 가치가 그것의 내면적 속성과 연결되면서 정신의 상

36) 김석진 (2019): 《새로 쓴 대산주역강의 1》, 대유학당, 서울, p234.

37) Jung CG (1989): CW11, *Psychology and Relig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53.

38) Wilhelm R (1997): 앞의 책, p37.

징성과도 이어진다. 순수 무의식 그 자체에서 비롯한 내용이 있는 그대로 발현하여 정신적인 흐름을 수용한다면 비어있는 영역이지만 결코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닌 전체를 품어 안는 변환과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비괘에서 그 초효의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땅이라는 특성이 있기에 가능하다. 알프레드 황은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비괘 초효의 의미에 대해 접근한다. 꿈을 이해할 때 객관적 단계의 해석처럼 초효의 내용을 현실의 상황에 적용한다. “이 효는 공동체에서 결합하려면 성실함에서 시작해야한다고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 빈 그릇에 포도주를 채울 때 또는 두레박에 물을 채울 때 처럼 당신의 성실함을 공동체에 건네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 결합에 참가할 것이다. 하괘(下卦)인 땅(地 ≍)은 여기에서 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받아들여진다.”³⁹⁾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땅이 개인 내면이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든 그 정신을 담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즉, 땅은 모성의 특성으로 정신과 불기분의 관계에 있고 그런 역동이 정신의 내면 세계와 인간 관계에도 작용한다.

이런 흙은 오행 사상에서 중심의 자리에 있다. 즉, 흙(土)은 가운데 있으면서 물(水), 불(火), 나무(木), 금속(金)의 나머지 네 요소들이 서로 순행하고 역행하는 흐름을 조율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중심을 잡아주는 일은 어머니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함홍의 ‘생곳’에서는 황토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다. 이 무속 신화에는 누가 창조자인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인간의 시원(始原)을 흙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창조론적 사고를 찾을 수 있다.”⁴⁰⁾고 하였다. 흙은 모든 생명과 사상(事象)의 출발점이자 바탕이다. 앞의 흙에서 인간이 나왔다는 우리의 원형적 내용은 서양 정신의 근간을 이루는 구약 성서의 아담에 대한 개념에서도 동일함을 표현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가 여기에서 흙은 신의 정신을 담아내는 그릇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아담이 내포하고 있는 전체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은 땅의 네 군데에서 모은 먼지로 아담을 만들었다. 신은 세상의 네 모퉁이인 빨강, 검음, 힘, 초록에서 첫 번째 사람을 만들기 위해 먼지를 모았다. 빨강은 피, 검음은 내장, 힘은 뼈와 힘줄, 초록은 신체이다.”⁴¹⁾ 이렇게 사위성을 담고 있는 아담은

39) Huang A (2010): 앞의 책, p99.

40)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서울, p643.

41) Jung CG (1989): CW14, *Mysterium Coniunctionis*, p386.

신의 정신성을 받아들이기에는 합당한 바탕이다. 물론 그 근거에는 흠의 상징성이 받쳐주고 있다.

이러 비괘(䷇)의 위에 자리 잡은 물(☵)에 대한 상징을 알아보자. 비괘 「상전象傳」에 대해 김 석진은 “땅위에 물이 있음이 비(比)이니, 선왕이 본받아서 만국을 세우고 제후를 친하니라(象曰 地上有水 比 先王 以 建萬國 親諸侯).”⁴²⁾고 문자 그대로 이해하였다. 이에 비해 알프레드 황은 “땅 위에 물이 있어 함께 흘러가니(flowing together) 결합의 상(象)이다.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으니 고대왕은 만국을 세우고 제후들과 긴밀한 관계(close relationship)를 유지한다.”⁴³⁾고 하였다. 그는 물과 땅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작용함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땅은 물을 받쳐주고 담아주는 그릇의 역할을 하듯이 연금술의 개념에서도 이 그릇의 상징적 가치는 전체적인 포용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가 빌헬름은 이에 대해 “물은 땅 위 모든 빈 곳을 채우고 거기에 단단하게 붙어있다. 고대 중국 사회 조직은 속해 있는 사람들과 통치자의 결합(holding together)이라는 이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물은 물과 결합하기(unite with) 위해 흐른다. 왜냐하면 물의 모든 법칙이 동일한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도 각 개인이 자신을 전체의 구성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을 공동체를 통해 함께 유지되어야한다(hold together).”⁴⁴⁾고 하였다. 여기에서 분명한 점은 물과 땅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은 결국 물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게 함에 있음을 보여준다. 더 붙어 이런 내용이 상징의 차원에서 그 바탕에 정신적인 면을 담고 있다고 이해함은 가능한 접근이다. 그 근거가 앞서 비(比)의 고대어에 대한 형상이 두 사람이 서있는 모습(𠄎)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비괘의 내용은 두 정신적 주체 사이의 관계를 그려낸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한 개인의 정신 안에 물과 땅의 상징적 가치가 그것들 나름의 역동을 만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비괘의 경우에는 그 구조가 원만한 상태에 있기에 서로 결합(holding together)을 하는 모양새를 지니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물의 상징적 의미는 보다 분명해진다.

42) 김석진 (2019): 앞의 책, p233.

43) Huang A (2010): 앞의 책, p96.

44) Wilhelm R (1997): 앞의 책, p37.

용은 물에 대해 “물과 영(靈)은 흔히 동일하다… 연금술사들의 천상적인, 나아가 신적인 물, 그들은 신적인 물, 곧 스키테스의 즙, 곧 프노이마(pnuema), 즉 에테르 성질이 있는 영(Geist), 모든 사물들의 정수라고 불렀다.”⁴⁵⁾ 물의 다양한 상징을 대표하는 특성으로서 물의 정신적인 가치에 대해 용은 접근한다. 즉, 물 안에는 의식으로는 알 수 없는 무한한 내용이 담겨있고 연금술사처럼 그것을 활성화시키면 정신 영역에서 궁극의 물질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에 의미가 한층 더 깊숙이 들어간 표현이 있다. “때로는 의도적이기도 했던 연금술의 신비 언어의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신적인 물’이나 그 상징인 우로보로스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테우스 압스콘디투스(deus absconditus), 물질 속에 숨겨진 신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것은 피지스(physis) (자연) 속으로 내려와 자연에 둘러싸이고 삼켜져버린 신적인 이성(Nous)을 의미한다.”⁴⁶⁾ 물은 신적인 속성으로 의식에 담겨있는 정신적 내용이다.

한편 김 석진은 건곤(☵ 1 ☷ 2) 이후 그 음양의 교감으로 만물이 나오는 둔괘(☷ 3) 거쳐 여러 과정과 힘든 상태의 과정이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주역》 상경(上經) 안에서 둔괘를 지나 몽괘(☶ 4), 수괘(☵ 5), 송괘(☱ 6), 사괘(☴ 7)를 지나 평화로운 세상인 비괘(☵ 8)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둔괘에서 비괘까지는 인류 역사의 큰 흐름이지만 인생의 성장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둔괘부터 비괘까지 괘상에 만물의 근원을 뜻하는 감중련(坎中連 ≡: 곤괘의 세 나누어진 부분≡의 가운데가 음이 양으로 변해서 그 중간이 이어졌다는 뜻) 물괘 여섯이 연이어 나온다. 역을 만든 분의 뜻을 다시 한 번 헤아려 보게 된다.”⁴⁷⁾고 하였다. 고대 동양에서도 물의 상징적 역할이 모든 만물의 시작임을 알리고 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물(☵) 안에 있는 하나의 양효(-) 즉, 의식이 무의식 상태인 정신 세계를 열고 만들어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그대로 서양의 연금술에서도 연결되어 물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이유로 고대인들은 물에 대한 상징을 종종 양과 음이 결합된 도(道)에 비교하였다. 도는 강의 구불구불한 흐름인 ‘계곡의 영(spirit)’이다. 교회의 상징은 가르침의 물(aqua doctrina)로서, 기적을 일으키는 연금술의 ‘신성한

45)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4): C.G. 용 기본저작집 제9권, 《인간과 문화》, 솔출판사, 서울, p275.

46) Jung CG (2004): 앞의 책, pp312-313.

47) 김석진 (2019): 앞의 책, p243.

divine' 물에 해당하는데 그것의 이중 측면은 메르쿠리우스(Mercurius)로 표현된다. 도가 되었던 세례수가 되었던 또는 신비의 영약이 되었던 이 상징적 물의 치유와 재생의 측면은 이런 개념이 나오는 신화적 배경의 치료적 특성을 가리킨다. 연금술에 정통한 의사들은 물의 신비스러움이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거나 치유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오래 동안 인식해왔다.⁴⁸⁾ 물이 함유하고 있는 이중적이면서 동시에 전체를 포괄하는 상징성은 그것이 마주하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끊임없는 변환으로 이끌고 간다. 더욱이 “메르쿠리우스는 투쟁하는 요소들과 단합의 생산자 사이의 중재자이며 조정자이다.”⁴⁹⁾ 물은 완전한 대극의 융합물을 상징한다.

그 내용이 비괘에서 일단락됨을 보여준다. 결과는 음양으로 상징되는 의식과 무의식의 두 정신적 내용의 결합이다. 《주역》에서 비괘 이후의 흐름은 그들의 결합에 대한 역동의 과정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물의 역할이 중요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주역》 상경(上經)의 말미에 물이 두 번 겹친 중수감괘(重水坎 ䷜)를 두었고, 《주역》 하경(下經)에서도 물과 불의 관계인 수화기제괘(水火既濟 ䷾)와 화수미제괘(火水未濟 ䷿)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 그리고 『주역』의 마지막 괘인 화수미제괘의 마지막 효사에서도 “그 머리를 물에 적시면(濡其首)”라고 하였으며, 첫 괘인 중천건괘의 초효에서는 “물에 잠긴 용(潛龍)”이라고 하였다. 결국 물에서 시작하여 물로 진행하다가 물에서 끝나듯이 『주역』은 물의 순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역》은 하늘과 땅으로 시작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은 물이 수행하고 이어준다. 이것은 아들인 물로 표상되는 의식이 전체 정신의 흐름에서 중추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물을 뜻하는 괘(☵)의 형상에서도 나타나듯이 위와 아래 두 음효(--) 가운데에 있는 하나의 양효(-)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도 무의식 가운데에서 의식이 정신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과 상통한다고 하겠다.

이런 흐름에서 물과 땅 이 둘의 관계와 그 흐름을 조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융은 이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다. “『철학자의 무리(Turba)』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대지(땅)는 모든 것을 지니고 있다. 대지는 무겁기 때문이다. 대지는 온 천계(天界)를 떠받치는 토대이기 때문에 원소들이 분리할 때 대

48) Jung CG (1978): CW9-II, *A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p281-282.

49) Jung CG (1989): CW14, *Mysterium Coniunctionis*, p13.

지는 건조한 상태를 나타낸다. 아무런 장애 없이 흥해에 길이 열렸을 때, 이 크고 넓은 바다가 바위를 흔들고 금속성의 물을 분출하였다. 신의 도시가 기꺼워 하던 엄청난 흐름의 물들이 마른 땅 속으로 사라진다... 만일 네가 흙에서 물을, 물에서 공기를, 공기에서 불을, 그리고 불에서 흙을 얻게 된다면, 그러면 너는 우리의 기술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소유하게 될 것이다. 등등.⁵⁰⁾ 여기에서 땅은 출발이면서 회귀점이다. 연금술에서 시작이자 마침이 원질료인 것처럼 이와 동일한 흐름을 보인다. 물론 이것은 동양의 오행 사상과 비슷한 순환 구조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동서양 동일하게 흙이 중요한 기능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연금술 서적에 언급되었듯이 흙에서 처음 나오는 물질이 물이다.

정신의 전체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두 물질 사이의 결합(holding together)은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지향하는 결과는 소위 융이 주장했던 초월적 기능에 근거한 새로운 의식성에 맞닿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은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 첫 단계는 흙에서 물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이 진행 과정의 시작이다. 흙에서 물이 생김은 상징적으로 모성의 무의식 영역에서 의식의 정신적인 내용이 만들어져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내용은 연금술의 시작 과정인 흑화(黑化 nigredo)에도 연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흙에서 물이 나옴은 『주역』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땅을 뜻하는 곤괘(䷁)에 이어 물(☵)을 포함한 여섯 괘가 줄지어 자리 잡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이런 점진적 진행 과정에서 흙과 물의 결합은 궁극적으로 비괘에서 그 열매를 맺는데, 그 내용은 서로 돕는 것(比輔也)이다. 다른 말로 하면 둘 사이의 관계가 시작되는 에로스의 발현이다. 그런데 이 관계 진행의 큰 틀은 곤괘인 흙에서 시작하여 다시 흙의 자리로 되돌아오는데 이것은 자기의 순환(circumambulation of Self) 과정과 유사하며, 이는 최종적으로 새로운 의식의 영원한 흐름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비괘에서의 물과 흙의 결합은 상징적으로 미묘체(subtle body)를 실현시키고 인식하는 정신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는 흙의 모성적 가치를 담고 있는 중지곤괘(重地坤卦)와 물로 상징되는 아들이 포함된 일양오음괘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50)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4): C.G. 융 기본저작집 제6권,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솔출판사, 서울, pp216-221.

일양오음괘(一陽五陰卦)와 중지곤괘(䷛): 의식과 모성적 무의식의 통합

중지곤괘는 그 의미가 “대지가 모든 만물을 싣고 있듯이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포용하라(厚德載物)”⁵¹⁾는 뜻이다. 그렇듯이 곤괘는 『주역』에서 모성을 상징한다. 따라서 모든 괘는 곤괘에서 생겨났고 그것들의 바탕이 된다. 음을 대표하는 곤괘는 정신 내용을 만들어주고 담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첫걸음이 음에서 양이 생겨나는 일양오음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섯 개의 일양오음괘 모두의 근본이 되는 체(體)가 중지곤괘(䷛)이다. 이 여섯 괘는 곤괘의 어머니를 바탕으로 하는 아들의 현상을 상징한다. 첫 번째에서부터 마지막 여섯 번째까지의 아들의 변화 과정은 무의식 안에서의 의식의 변환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그 최적 상태가 여섯 괘 중에서 가장 균형을 이루고 올바른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 즉 중정(中正)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수지비괘의 오효(五爻)이다. 즉, 의식이 무의식에서 생겨나 그 후 무의식과의 상호 관계를 끊임없이 해오면서 의식으로서의 합당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의식은 이로써 자신 안에 내재되었던 무의식의 가치를 올바르게 실현하게 된다. “나타나게 돕는다(顯比)”로 시작하는 비괘 5효는 그 의식을 무의식이 든든하게 지지하면서 자신의 잠재된 의미를 의식을 통해서 드러냄을 표명한다. 그렇다면 이런 의식이 발현하게 된 바탕인 무의식에는 그 내용과 상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수지비괘와 중지곤괘의 초효에서부터 상효까지 내용을 비교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주역』에는 양효(陽爻-)가 하나이고 음효(陰爻--)가 다섯인 일양오음괘(一陽五陰卦)가 여섯 개가 있다. 그런데 여섯 괘 모두에서 유일한 양효가 그 괘의 중심인 주효(主爻)이다. 즉, 하나의 양이 다섯 음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주효는 그 괘 전체를 상징하고 괘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다섯 효들은 주효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일양오음괘는 양효의 순서대로 지뢰복괘(地雷復 ䷗ 24), 지수사괘(地水師 ䷆ 7), 지산겸괘(地山謙 ䷎ 15), 뇌지예괘(雷地豫 ䷏ 16), 수지비괘(水地比 ䷇ 8), 산지박괘(山地剝 ䷖ 23)가 있다. 이 괘들의 주효인 하나인 양효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흐름을 알 수

51) 신성수 (2005): 앞의 책, p137.

있게 된다. 즉, 상징적으로 무의식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의식 하나가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더불어 그 하나인 양효가 초효(初爻)에서부터 상효(上爻)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의식의 흐름과 진전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의식이 각 상황마다 어떤 태도가 요구되고 가장 합당한지를 설명한다. 그 결과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함에 가장 적합한 상황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 바탕 자리에는 모성적 무의식을 의미하는 곤괘가 있기에 이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곤괘의 초효는 “초육은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이르느니라(初六 履霜 堅冰 至). 초육은 순음(純陰)으로 되어 있는 중지곤괘의 맨 아래에 있다. 곤(坤)은 땅의 형세라 하였다. 지구가 공전하면서 나타나는 계절 변화, 즉 춘하추동 사시에 있어 음기(陰氣)가 응결되는 자연현상이 서리(霜)이다. 맨 아래에서 음기인 서리가 엉기니, 그 서리를 밟아 가면 굳은 얼음이 된다. 음양 기운의 승강(昇降)법칙에 있어, 중지곤괘(䷁)는 음력 10월(孟冬)에 해당한다. 음력 10월에 순음의 기운이 충만하게 되니, 음력 11월(仲冬, 동짓달)이 되면 일양(一陽)이 생하여 음을 영겨 나간다.”⁵²⁾ 그 결과로 지뢰복괘(䷗)가 된다. 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것이 처음으로 드러나고 땅위에 표현되는 것이 서리이다. 이에 대해 알프레드 황은 “이것은 작은 실마리로부터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교훈이다. 그러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⁵³⁾고 하였다. 무의식은 그 자체로 자율적이어서 그 합목적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곤괘에서 초효의 음이 양으로 변하면 지뢰복괘가 된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곤괘의 10월에서 그 다음 달인 복괘의 11월로 넘어가는 것과 통한다.

고대 노르드(Norse) 신화에 서리 거인(Frost Giant)의 이야기가 있다. 태고의 혼돈에서 처음 태어난 생물인 거인 위미르는, 암울한 냉기가 따뜻함을 만남으로 인해 생겨난 물방울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가 잠을 잘 때 그의 몸에서 요툰(노르드의 거인)들과 괴물들이 생겨났는데,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서리 거인(Frost Giant)족을 형성하여 암울한 냉기의 지역인 니플헤임에서 살았다. 한편 신들은 부리에게서 태어났는데, 부리의 손자인 오딘과 빌리와 베이가 위미를 죽였다. 위미르의 피가 니플헤임을 가득 채워 홍수를 일으켜 한 부부를 제외한

52) 신성수 (2005): 앞의 책, p140.

53) Huang A (2010): 앞의 책, p44.

모든 거인들이 익사했다. 그 이후 위미르의 신체 부분으로 대지, 바다, 구름, 초목과 하늘을 만들었다.⁵⁴⁾ 여기에서도 서리는 생명이 시작해야하는 원초적이고 인간의 의식이 개입되지 않은 정신의 무의식적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기에서 생겨나는 모성적 출발점을 뜻한다.

그 내용이 지뢰복괘(䷗)의 초효에 담겨있다. 이것을 살펴보면 “초구는 머지않아 회복한다. 뉘우치는데 이름이 없으니, 크게 길하다(初九 不遠復 无祗悔 元吉)”라고 하며 이에 대해 신 성수는 “7을 주기로 음양기운이 왕래하는 것은 하늘의 법칙이다. 초구는 음 기운이 왕성한 순음(純陰)의 중지곤(重地坤)에서 맨 아랫자리에서 (음했던 것이) 양 기운으로 회복하였으니, 마치 본성을 회복하여 뉘우치는데 이름이 없는 것이다. 본성을 회복하여 밝은 기운이 상서롭게 펼쳐나가게 되니 크게 길하다.”⁵⁵⁾고 설명한다. 즉, 무의식이 정점에 있어 거기에서 양의 기운인 빛에 해당하는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곤괘 초효 땅 위의 얼음은 곧 물이 되어 흐를 것인데 그 상태가 다시 회복한다는 복괘에 해당한다. 이에 더해 신 성수는 “외괘가 곤지(坤地)䷁, 내괘가 진뢰(震雷)䷲로 이루어진 괘를 ‘복(復)’이라 한다. 산지박(山地剝 ䷖ 23)괘에서 박락(剝落)한 상구의 양이 중지곤(重地坤 2)을 거쳐 지뢰복(地雷復 ䷗ 24)에서 초구가 되어 다시 양 기운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산지박괘 상구의 양효가 중지곤괘를 거쳐 다시 지뢰복괘의 초효의 양효로 자리 잡는다). 순음(純陰)의 시절에 잠복하여 있다가 다시 양 기운이 회복하는 것이기에 지극히 조심스러운 보호가 필요하다. 지뢰복괘의 체는 중지곤괘에 있는데, 곤괘 초효사를 다시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지뢰복괘는 12월괘로 음력 11월 동짓달에 해당한다.”⁵⁶⁾고 하였다. 서리를 뚫고 땅 밑에 잠재되어있는 힘으로 시작하는 복괘는 무의식에서 태동하는 의식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가장 어두운 동지에 그리스도가 빛으로 태어나는 것과도 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영웅)의 비상은 빛의 갱신更新을 의미하며 그림으로써 의식의 암흑화로부터, 즉 무의식에서의 퇴행에서 벗어나 재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⁵⁷⁾ 동시에 이런 흐름은 모성적 무의식을

54) 인터넷 위키 백과, “요툰” 참조.

55) 신성수 (2005): 앞의 책, p325.

56) 신성수 (2005): 앞의 책, p321.

57)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6): C.G. 융 기본저작집 제8권,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출판사, 서울, p316.

상징하는 곤괘의 상태를 벗어남을 뜻한다. 이리하여 들어서게 되는 “의식의 발달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의 구별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과 구별됨으로써 무의식과 본능의 세계와 상대적인 결별을 하게 된다.”⁵⁸⁾ 이렇게 무의식의 내용을 인식하고 그 담겨진 내용을 실현하면서 의식은 자신의 길을 열어어나가기 시작한다. 이것이 길한 것이고 음양의 이치에 따르는 것이다.

이어 곤괘 “육이는 곧고 모나고 크다.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 (六二 直方大 不習 无不利) 음의 두 번째 육이는 음 자리에 음으로 처하여, 자리가 바르고 또한 내괘의 중을 얻고 있으니 중정(中正)하게 곤(坤)의 도를 잇는 상이다. 그러니 곤(坤)의 덕을 그대로 이어받아 곧고 방정하고 큰 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곤도(坤道)를 이어받으니, 따로 익히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져 이롭지 않음이 없다.”⁵⁹⁾ 곤괘 초효의 서리에서 비롯한 땅의 기운이 활성화되어 음이 음으로서 합당한 자세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힘도 갖고 있다. 이것은 연금술의 그림에서 하늘에 떠있는 독수리를 견고하게 매달고 있는 두꺼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⁶⁰⁾ 이미 두꺼비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 땅을 통해 배웠기에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여성과 모성의 땅과 연결된 본성적 지혜이다. 하늘을 상징하는 로고스와 땅을 의미하는 에로스 사이의 중도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모성적 무의식인 땅과 연결된 본능이 있기에 따로 의식적 노력이 필요가 없음을 말한다.

이런 견고한 상태에서 이것의 이효 음이 바뀌면 지수사괘(䷗)의 이효의 “구이는 군사를 쓰는데 중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길하고 허물이 없으니, 왕이 세 번 명을 준다(九二 在師 中 吉 无咎 王三錫命)”가 된다. 곤괘 이효의 중정한 힘이 그대로 받쳐주면서 어머니와 같은 배경이 되어 지수사괘 이효에 전달된다. 빌헬름은 이를 이행하는 주체에 해당하는 이효에 대해 “장군은 그의 부대 가운데 있어야 하고, 군대와 접촉하면서 그가 이끄는 그들과 좋고 나쁨을 나누어야 한다. 이것만이 그에게 요구되는 무거운 요구를 감당할 수 있다… 그는 개인적 선호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부대의 중앙에 있는 그는 부하들로부터 인

58) Jung CG (2006): 앞의 책, p117.

59) 신성수 (2005): 앞의 책, p141.

60) Abt T, 이유경(역) (2005): 《음 심리학적 그림해석》, 분석심리학연구소, 서울, p58, 그림 31.

격적으로 존경을 받는다.”⁶¹⁾ 이것은 복괘의 초효를 이어받은 의식의 내용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모성적 본능의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적인 상태를 바탕으로 하는 의식은 스스로 갈등 상황의 중심에 들어가서 여기에 전념한다. 지수사괘는 전형적으로 싸움인 갈등을 설명하는 괘이다. 이럴 때 의식의 태도는 무의식에 사로잡혀 수동적이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중앙에 자리 잡는다. 또한 “왕은 가시적인 형상에서 신적인 원리를 상징한다. 그는 신의 육화 혹은 신의 거처이다… 우리가 그를 자기(Self)의 상징으로 간주하게 하는 많은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⁶²⁾ 이렇게 정신 전체를 주관하는 왕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의식은 왕과 왕의 백성들인 병사들, 즉 자기(Self)와 다른 정신적 내용 사이에서 건강한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즉, 의식은 정신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곧고 모나고 큰어머니에게서 중심을 잡은 아들 장수가 나온다.

다음으로 곤괘 “육삼은 빛남을 머금어 가히 바르게 하니, 혹 왕의 일을 좇아서 이름은 없되 마침은 있다(六三 含章可貞 或從王事 无成有終).” 그 의미는 “안으로는 밝은 덕이 있더라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입속에 구슬을 머금듯이 속으로 잘 지키어… 음으로서 양의 일(王事)을 좇아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것”⁶³⁾이다. 여기에서도 전체 정신의 조율자인 왕을 중심으로 정신적 흐름을 이어간다. 이렇게 음은 무의식의 영역에서 의식의 내용인 빛이 자리 잡게 되어 ‘빛남을 머금고 있다’라고 말한다. 즉, 이것은 무의식의 자리에서 의식이 형성되어 그것을 품어 기르기 시작함을 상징한다. 이전 곤괘와 사괘의 이효에서 무의식인 모성적 땅의 힘이 의식 영역에서 장수의 굳건함으로 연결되었는데, 삼효에서 이것이 이어져 드디어 무의식에는 하나의 고유한 정신적 단위가 형성된다. 이것이 빛으로 표현된다.

에딩저는 “빛은 의식을 표현한다. 모든 민족은 빛의 창조로 묘사되는 창조 신화를 갖고 있다. 그런 신화들은 무의식의 어둠에서 생겨나는 의식의 빛인 자아의 발생을 가리킨다.”⁶⁴⁾고 하였다. 자아 형성은 원형적으로 근본에 있는 정

61) Wilhelm R (1997): 앞의 책, pp33-34.

62)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역) (2018) : 《민담의 심리학적 해석》, 한국융연구원, 서울, p70.

63) 신성수 (2005): 앞의 책, p230, p231.

64) Edinger EF (1992): *Ego and Archetype*, Shambhala, Boulder, p129.

신성을 갖는다. 그러하기에 왕과 연관이 되고 이런 흐름은 하나의 겸손한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지산겸(䷎)괘 삼효에 표현된다.

겸괘는 땅 위에 높이 있어야 할 산이 그 아래로 자리 잡고 있는 형상이므로 겸손함을 표상한다. 그러나 이 괘의 주효인 삼효는 다섯 음 사이에서 홀로 양의 기운으로 있기에 그 음들의 중심 역할을 힘들게 수행한다. “Self는 제일 높은 곳에서부터 아주 낮은 곳에 모든 형태들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동물 모습의 신(theriomorphic) 상징을 갖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무기물의 가장 일반적인 그것은 산과 연못이다.”⁶⁵⁾ 이 말은 Self가 아래에서 아들이 의식을 겸손하게 받쳐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구삼은 수고로워도 겸손하니, 군자가 마침이 있으니 길하다(九三 勞謙 君子 有終 吉).”고 하였다. 앞의 곤괘 삼효에서 빛을 머금고 왕의 일을 돕는 음은 상당한 의미와 힘을 갖고 있기에 이런 상황을 견디어 낸 양에 해당하는 의식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동시에 사괘 삼효에서 양은 곤괘 삼효의 음이 품고 있는 그 빛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이에 대해 빌헬름은 “이곳이 그 비밀이 공개되는 괘의 중심이다. 뛰어난 명성은 위대한 업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명성에 현혹되면 곧 비난을 받고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반대로 그가 자신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유지하면 사랑을 받으면서 자신의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는다.”⁶⁶⁾고 하였다. 힘이 들어도 애를 써서 상황, 즉 무의식에 대해서 겸손하게 행동함은 어려움에서도 무의식의 도움을 받음을 말하고 있다. 무의식의 부정적인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의식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 그 과정을 거쳐서 무의식 자체가 변환하여 의식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것은 곤괘 삼효의 빛을 품으면서도 왕에게 순종하는 겸손함이 그대로 이어져 겸괘 삼효에서 ‘수고로워도 겸손함(勞謙)’으로 드러난다. 이런 점은 보통 삼효 효사에는 ‘길하다’는 표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겸괘에는 삼효의 공과 의미가 크기에 그런 내용이 반영되고 있다. 의식이 가장 큰 미덕은 겸손함이다. 그 결과 언젠가는 새로운 의식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두 삼효의 핵심은 겸손으로 연결된다. 거기에는 무의식의 겸손한 빛이 어머니의 자리에서 준비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65) Jung CG (1978): CW9-II, *Aion*, 앞의 책, p226.

66) Wilhelm R (1997): 앞의 책, pp65-66.

이런 흐름을 이어받아 곤괘 “육사는 주머니를 매면 허물이 없으며 명예로움도 없을 것이다(六四 括囊无咎 无譽).”라고 하였다. 그 의미는 “함부로 발동하지 말고 자제하여, 환난이 닥칠 것을 미리 예방하라는 뜻에서 주머니를 붙들어 매는 ‘괄낭(括囊)’을 하면”⁶⁷⁾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다는 것이다. 빌헬름은 “어두운 요소는 움직일 때 열리고 쉬고 있으면 닫는다. 가장 엄격한 과묵함이 여기에 나타난다. 이 시간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에게 도전한다면 저항할 수 없는 적대자들의 증오로 이어지거나, 또는 불평한다면 잘못된 인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고독할 때나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자제해야 한다. 거기에서 그는 아무도 알아내지 못할 정도로 자신을 숨길 수 있어야 한다.”⁶⁸⁾고 하였다. 무의식의 악한 힘이 왕성할 때 의식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은 태도이다. 그럴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주머니를 매듯이 있는 것이다. “주머니는 닫아서는 여성성의 상징이고 풍요를 의미한다.”⁶⁹⁾ 이것은 내향의 상태로 지내면서 새로운 것을 기다림을 뜻한다. 이 시점은 의식이 가장 정점인 오효에 다가서기 직전이어서 그만큼 무의식의 부정적인 힘이 극에 다다른다.

이런 무의식의 상태에 합당하게 연결되는 것이 곤괘(䷛) 음의 사효가 양으로 변한 뇌지예괘(䷏)이다. 예괘 사효는 “구사는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크게 얻음이 있으니, 의심치 말면 벗이 비너를 합할 것이다(九四 由豫 大有得 勿疑 朋 盍 簪).”고 하였다. 그 의미는 “(양이) 조금도 의심을 두지 말고 화합을 이루면 모든 음들이 단결하여 소리도 고르게 잘 나오고 즐거움도 다 같이 누린다.”⁷⁰⁾는 것이다. 여기에서 “예(豫)”는 즐거운 것이고 미리 예측하는 것이기도 하다. (곤괘) 육사효가 변하면 외괘가 진(☵)으로 발동하게 되어 즐거움이 지나치거나 혹은 예측한 바를 함부로 발설하여 흥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호괘의 감(☶)으로 ‘입 주머니를 매라(括囊)’고 하는 것이다.”⁷¹⁾라고 신성수는 설명한다. 이 말은 무의식이 준동하게 되면 의식이 영향을 받아 팽창이 될 가능성에 놓이게

67) 김석진 (2009): 앞의 책, p233.

68) Wilhelm R (1997): 앞의 책, p14.

69) Ad de Vries, Arthur de Vries (2004): *Elsevier's Dictionary of Symbols and Imagery*, Elsevier, Amsterdam, p44.

70) 김석진 (2009): 앞의 책, p465.

71) 신성수 (2005): 앞의 책, p142.

되므로 정신적 에너지를 안으로 모아 내향화의 상태로 있어야 함을 뜻한다. 특히 예괘의 단계는 의식화 과정이 결실을 맺기 전이라 약간의 흥분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즉, 무의식을 간과한 채로 있게 되면 정서 상태가 부정적인 영향에 놓이게 된다.

한편 알프레드 황은 “예괘는 근본적으로 기쁨을 의미한다: 오늘날 그것은 또한 평화와 행복을 의미한다. 예괘는 앞의 괘인 겸괘의 도전괘(倒轉卦)이다. 예괘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이끈다. 그렇듯이 겸괘(겸손함)과 예괘(기쁨)은 보완적(complementary)이다.”⁷²⁾ 『주역』은 겸손하게 어려움을 받아들이면 기쁨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주역』 괘의 순서에는 그 정신적 배경에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도전괘이다. 《주역》의 괘는 대부분이 도전괘로 짝을 이루고 있다. 도전괘는 “괘를 반대편에서 본 괘이다. 제 3자적 입장에서 일의 경과를 살필 때 쓴다… 이렇게 도전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일의 진행을 살피고 개입한다는 뜻이 있다.”⁷³⁾ 이것을 알프레드 황은 보완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일양오음괘 여섯도 모두 《주역》의 순서상 도전괘의 관계에 있다. 즉, 지수사괘(䷗ 7)와 수지비괘(䷗ 8), 지산겸괘(䷎ 15)와 뇌지예괘(䷏ 16), 산지박괘(䷖ 23)와 지뢰복괘(䷗ 24)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양인 의식이 다섯 음인 무의식과 맺어가는 과정은 이런 상호 연관된 관계 안에서 진행된다는 것이 《주역》의 입장이다. 따라서 예괘에서는 겸괘의 결과로 기쁘고 즐거운 상황을 맞이하는데 이것을 잘 표현된 것이 예괘 4효이다. 거기에서 “의심치 말면 벗이 비녀를 합할 것이다(勿疑朋盍簪).”고 하였다.

김석진은 “잠(簪)은 비녀를 말하는데 형클어져 있던 머리카락을 뭉쳐서 한 가운데에 비녀를 꽂아놓으면 낱자(옛날 부인들이 머리를 묶은 것을 일컬음)가 되어서 모아진다.”⁷⁴⁾고 하였다. 폰 프란츠는 “머리카락은 마력과 마나(Mana)의 원천이다… 분석 초기에 흔히 정돈되지 않은 거친 머리카락에 대한 꿈을 꾸다. (빛은) 자신의 생각을 정돈하고 분명하게하고 의식화하는 능력을 상징한다.”⁷⁵⁾ 또한 “랍비어(rabbinish) 문헌을 보면 영혼들은 전적으로 아담의 몸과

72) Huang A (2010): 앞의 책, p156.

73) 김석진 (2019): 앞의 책, p41.

74) 김석진 (2019): 앞의 책, p.366.

75)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역) (2018): 앞의 책, p216.

결합되어 있었는데, 그의 머리카락에 붙어있기도 하고, 그의 코에 붙어있기도 했다. 영혼들은 바로 거기에서 태어나 세상에 나온 것이다.”⁷⁶⁾ 이어 에스키모 여신 세드나(Sedna)에 대한 신화에서 “샤먼은 그녀에게 가서 머리카락을 빗어 주고 머리를 씻겨 그녀에게서 이를 제거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여신은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다시 에스키모들에게 바다 동물들을 보내기 시작한다.”⁷⁷⁾ 고 말한다. 여기에서 머리카락은 정신적 내용과 특히 여성성의 뿌리에 해당하는 창조성과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머리는 온갖 무의식의 자율적 내용이 생겨나는 곳이라면 이것을 단단하게 묶는 의식적 태도는 이 두 정신적 내용을 하나로 모으는 것과 같다. 여성에게 비녀를 꽂는다는 것은 한 여성으로서의 지위를 얻는 것처럼 이것은 특히 무의식의 여성성이 의식의 남성과 하나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므로 곤괘 사효의 주머니를 때는 무의식의 모성적 배경은 예괘 사효에서 머리에 비녀를 합한다는 의식의 결정에 연결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최종적 열매인 새로운 의식의 출현으로 상징되는 비괘 오효로 향하는 준비 과정을 마친다.

수지비괘(䷗)와 곤괘(䷎) 오효: 개성화와 모성 원리

앞의 과정을 거쳐 의식이 가장 적합한 상태인 비괘 오효로 진행하게 된다. 이때에도 그것의 모성적 배경에 해당하는 곤괘를 아는 것이 전제된다. 곤괘 오효의 “육오는 누런 치마면 크게 길할 것이다(六五 黃裳 元吉).”이라고 하였다. 치마에 대해서 “제주도의 문전 본풀이에, ‘조왕할머니는 불붙던 행주치마로 모진 일을 담아 내버리고 좋은 수액을 삼덕으로 거두어 주옵소서.’하여 치마를 그릇으로 삼는다. 중부 지방의 굿거리에서 무당이 공수를 내릴 때, 여자들이 치맛자락을 거두어 들고 담는 시늉을 한다.”⁷⁸⁾는 설명이 있다. 또한, 노란색은 “제주도 무속 신화의 천지왕 본풀이에,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오방의 구름 빛깔을 말하고 있다… 중앙에는 황(黃)구름이 감돌고 있었다는 것이다. 노랑은 중앙을 상징하는 빛깔이다. 그리고 중앙에 대한 설명으로서 그 특징을,

76) Von Franz ML, 김현진(역) (2019): 《창조신화》, 한국용연구원, 서울, p147.

77) Von Franz ML, 김현진(역) (2019): 앞의 책, pp49-50.

78)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2000): 《한국문화 상징사전 2》, 두산동아출판사, 서울, p677.

땅이 평평하며, 늘 젖어 있어서 만물이 잘 자라는 곳이라고 하였다.”⁷⁹⁾ 즉, 노란 치마는 품어 안는 여성성의 다산과 풍요를 의미한다. 이렇게 곤괘 오효는 여성적이면서 모성적인 수용성이 최고의 상태에 있음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그 특성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中)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빌헬름은 “노란색은 땅과 중앙의 색이다. 그것은 신뢰와 진실의 상징이다. 치마는 드러나지 않게 꾸며지는데 귀족적 유보의 상징이다. 누군가 두드러지지만 독립적이지 않은 자리에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진정한 성공은 최고조의 분별력에 달려있다. 남성다운 순수함과 세련됨이 스스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 그들은 내면으로부터의 효과로서 간접적으로만 자신을 나타내야 한다.”⁸⁰⁾고 하였다. 표면적인 자세는 줄이고 안으로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내향적 관점은 모성적 태도의 전형이다. 실제로 곤괘의 본질인 땅이 노란색과 중앙의 의미로 나타나게 된다. 모성에도 견고한 정신적 면모가 있음을 보이고 모두 그것의 실제 중요한 기능인 중앙의 담아주는 역할로 모아진다. 이런 모성적 모습은 그것의 양으로 변한 비괘 오효에서 전해진다.

수지비괘(䷗) 오효는 “구오는 나타나게 도우니, 왕이 세 군데로 모는 것을 씬에 앞의 새를 잃으며, 읍 사람이 경계하지 않으니 길하다(九五 顯比 王用三驅 失前禽 邑人不誡 吉).”이다. 곤괘의 초효에서 사효까지의 전체 흐름이 오효에서 맺어져 ‘누런 치마’로 형상화되듯이 일양오음괘의 이런 과정은 비괘 오효의 ‘나타나게 돕는’ 형태로 결론을 맺는다. 나타난다는 것은 무의식의 상태에 있던 정신 내용이 의식의 영역으로 자리 잡음을 뜻한다. 그런데 이렇게 구오가 나타남에는 동반되는 내용들이 있다. 왕의 자발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빌헬름은 “고대 중국의 왕실 사냥에서는 세 방향에서 사냥감을 모는 것이 관례였는데, 네 번째 방향에서는 동물들이 도망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동물은 왕이 화살을 쏘려고 서있는 문을 통과해야 했다. 오직 이 상황에 들어온 동물만 화살에 맞았다. 앞으로 도망친 동물들은 탈출이 허용되었다. 이 관습은 왕에 어울리는 태도와 일치했다. 왕실의 사냥은 학살을 위한 추격은 원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자발적으로 노출된 동물만 죽여야 한다고 주장한다.”⁸¹⁾ 여기에는 동물의 본능을 존중한다는 깊은 배려가 있다. 즉, 무의식

79)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서울, p165.

80) Wilhelm R (1997): 앞의 책, p15.

81) Wilhelm R (1997): 앞의 책, p39.

의 배열을 기다리면서 그것에 맞게 삶을 수용하며 살아간다는 내적 법칙이 있다. 다른 한 면에는 상징적으로 4는 완전을 뜻하지만, 그 중의 하나를 열어두어 그곳이 생명을 존중하는 무의식의 자리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의식이 준비하더라도 최종적인 결론, 즉 전체성은 무의식에 맡기는 자세이다. 특히 오효에서 강조하는 것은 본능적인 면을 존중할 때 왕은 왕일 수 있다는 점이다. 권력은 삶의 바탕과 자연에서 올라오는 힘과 함께 살아가는 곳에서 그 가치를 지닌다.

곤괘와 비괘 오효는 각각의 괘에서 중(中)의 위치에 있기에 모두 최적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즉, 곤괘의 오효처럼 모성적 무의식이 가장 활성화된 상태가 되어야 의식 역시 비괘의 오효처럼 뚜렷하고 건강한 인식을 갖게 됨을 말한다. 그래서 두 효사 모두 ‘길(吉)하다’고 표현한다. 누런 치마의 모성적 바탕이 있으면 의식은 그런 상황에서 필수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리학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 상징적으로 의식과 무의식은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는 심리학적으로 근친상간의 주제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는 앞서 언급했던 펠리칸의 피가 근본에 있다. 즉, 재생을 위해 죽은 새끼를 다시 자신의 피로 살리는 모성적 희생의 과정이 동반된다.

이 의미 깊은 신화적 주제에 대해 융은 이렇게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인과성보다는 목적론적으로 설명할만한 현상들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다시 아이가 되려는, 즉 부모의 보호막으로 되돌아가서 어머니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위해 어머니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독특한 생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어머니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 근친상간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찾고 있는 것은 근친상간적 동침이 아니라, 재탄생이다… 이로써 리비도는 어느새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형태들로 인도된다.”⁸²⁾ 어머니와 아들은 가장 직접적인 투사의 대상이 되어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상징적으로 근친상간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서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 주체는 아들이다. 즉, 의식이 이 힘든 과업을 이루어 내야 한다. 그런데 그 대상이 실제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의 정신 안에 담겨 있는 어머니 상(像)이다. 즉, 아들의 리비도를 건강하게 활성화시키고 흘러가

82) Jung CG (2006): 《영웅과 어머니 원형》, pp99-100.

게 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은 밖으로 던지며 살았던 아들의 정신 내적 내용들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투사의 철회 과정을 통해 그것들과 대면해야 한다.

아들의 입장에서 모성적 무의식의 내용에 대한 투사의 철회와 그 의미와 방법에 대해 용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들이 삶과 세상을 향해 품었다가 충족시키지 못한 소망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자에게는 불성실한 에로스(faithless Eros)가 필요한데, 이것은 자신의 어머니를 잊을 수 있고 또 그의 인생의 ‘첫 사랑’을 포기하는 고통을 견딜 줄 아는 그런 에로스일 것이다… 아들의 경우를 보면, 투사를 하게 만드는 요소는 어머니 이마고이며, 따라서 어머니 이마고가 진짜 어머니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투사는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아들이 자신의 정신 영역 안에 어머니 이마고만이 아니라 딸과 누이, 연인, 천상의 여신, 지하의 바우보(Baubo: 초기 오르페우스 종교에 등장하는 외설적이고 성적으로 해방된 그리스 신화의 늙은 여신) 이마고도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을 때에만 투사가 사라질 수 있다.”⁸³⁾ 아들의 내면에 작용하는 어머니의 원형적 내용을 다루려면 투사의 철회가 우선이다. 이 투사에 대한 작업도중에 아들은 남성이 되어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中)의 태도이다.

이러한 중(中)의 개념을 잘 표상하는 것이 괘에서의 2효와 5효이다. 비괘의 경우에도 2효와 5효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상괘(上卦)인 아들의 경우를 논하고 있으므로 5효에 적용된다. 그리고 5효는 비괘의 중심 효(爻)이다. 즉, 5효는 비괘 전체를 조율하는 위치에 있다. 5효로 말미암아 비괘의 특성이 드러난다. 중은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철학적 비유이듯이 상당한 상징성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용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중심을 ‘자기(Self)’로 지칭한 것은 경험적이고도 역사적인 자료들에 대한 충분한 성찰과 신중한 검토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유물적인 해석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중양’이란, 정신이 육체와 융합하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는 바로 그곳 ‘외에 어느 곳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무의식에 기원을 둔 정신 현상으로 보는) 심령론적으로 해석한다면(spiritualistic interpretation), 자기는 심혼과 신체를 일깨우고 바로 그 창조적 지점에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정신’ ‘외에 아무것

83) Jung CG (1978): CW9-II, *Aion*, pp11-13.

도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⁸⁴⁾ 그리고 무의식은 그 중양을 지향하여 추구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주체의 태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즉, 정신 전체를 주관하는 중심도 있지만, 의식의 영역에서도 이것에 발맞추어가는 태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의식과 무의식의 융합이 일어나 초월적 기능이 작용하여 새로운 의식으로의 변환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비괘 오효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중(中)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리비도의 내향화와 관련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내향화와 퇴행은 물론 새로운 방향성과 적응이 확실히 필요한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활성화된 원형은 그때그때 닥친 위기 상황의 원상(primordial image)이다... 오히려 항상 다소 전형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형식form들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어떤 위기 상황이 나타나면, 이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하나의 원형(archetype)이 무의식에 배치된다... 이와 같은 의례 행위들은 리비도를 무의식으로 향하게 하여 내향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⁸⁵⁾ 내향화는 무의식과의 건강한 교류를 지향한다. 상징적으로 이것은 아들과 어머니의 결합과 그 결과로 새로운 의식의 획득을 내포하고 있다. 비괘 오효의 내용과 중(中)의 개념은 심리학적으로 무의식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의식이 형성해감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복괘 초효에서부터 시작하여 비괘 오효까지 하나인 양효의 과정으로 상징화된다.

이렇게 해서 비괘 오효에서 아들을 상징하는 의식이 가장 활성화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주역』은 정신의 영원한 흐름을 말하고 있다. 그 방법은 끊임없는 음양의 순환이다. 최고의 상태에 이르러서는 다시 기울어지는 단계로 들어서면서 새로운 과정을 준비하게 된다. 이것이 여기에서 논하고 있는 일양오음괘에서도 드러난다. 즉, 중지곤괘의 마지막 자리인 상효와 그 음효가 양효로 변한 산지박괘의 끝자리인 상효에서 그 내용이 담겨있다.

84) Jung CG (2002):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p278.

85) Jung CG (2006): 《영웅과 어머니 원형》, pp214-217.

산지박괘(䷗)와 중지곤괘(䷌) 상호: 무의식을 통한 의식의 재생 및 순환

여기에서도 박괘를 다루기 전에 그 모성적 바탕인 곤괘 상호를 언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곤괘(䷌) 상호는 “상육은 용이 들에서 싸우니 그 피가 검고 누르도다(上六 龍戰于野 其血 玄黃).”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신 성수는 “순음의 중지곤괘에서 상육은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음 기운이 극한 상태에 이른 것이다... 용은 중천건괘의 여섯 용이고, 들(野)은 중지곤괘의 땅을 의미한다. 땅의 음기가 맨 위에서 극한 상태에 있으면서 하늘의 양기를 불러들이니, 하늘의 여섯 용이 땅에 내려와 음기와 교감하는 것이 ‘용전우야’이다. 땅의 누런 음기와 하늘의 검은 양기가 섞이게 되니, 그 정혈(精血)이 검고 누런(玄黃) 색으로 된다.”⁸⁶⁾ 곤괘 상육은 상당한 역동이 일어난다. 음과 양이 뒤섞여, 즉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 어떤 새로운 정신성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나타난다. 음의 끝에서 양을 만난다는 것은 무의식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것은 의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상전象傳>에서는 “용이 들에서 싸우는 것은 그 도가 궁한 것이다(龍戰于野 其道 窮也).”라고 하였다. 이때는 그 기운이 극에 이르렀기에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것은 무의식이 최대치에 이르면 의식에서의 변환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무의식의 모성적 내용에는 아들을 의미하는 의식을 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곤괘 상호의 이와 같은 활발한 역동은 무의식의 자율성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의식과의 관계를 동반하게 된다. 빌헬름은 “상호는 괘의 끝에 이른다. 이 괘 안에는 모든 효사들이 음이다. 음의 요소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양의 요소는 계속해서 후퇴한다. 그래서 양(陽)이 끝점에 도달한다. 이것은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음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은 긍정과 부정, 어둠과 빛 사이의 투쟁이다. 중국 전통에 하늘의 색은 파란색이다. 두 마리의 용(하나는 양, 다른 하나는 음)이 싸우고 있다. 결과적으로 푸르고(하늘) 노란(땅) 그들이 색깔이 합쳐진다. 누군가 극단에 가까워질 때 그 길이 끝난다는 것이 이 효사가 주는 교훈이다. 변화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지금이 그 전환점

86) 신성수 (2005): 앞의 책, p146.

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무너질 것이다.”⁸⁷⁾고 하였다. 우리의 생활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역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무의식이 극에 달하면 의식으로 의 이행은 필연적이다. 어둠의 끝은 새벽이고, 아침으로 이어진다. 어둠인 상태를 고집하면 영원히 밤에 해당하는 정신증 상태에 놓이는 것이고, 빛을 받아 들이면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의식을 얻게 된다. 이것이 중지근괘 상호의 음이 양으로 변해서 산지박괘 양의 상호가 되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박괘(䷗) 상호는 “큰 과실은 먹지 않으니, 군자는 수레로 모셔지고 소인은 집을 깎아 망치리라(碩果不食 君子得輿 小人剝廬).”라고 하였다. 이렇게 음효 다섯이 밑에 있고 양효 하나만이 제일 위에 놓여있다. 의식이 무의식의 힘에 밀려 끝에 처한 상황이다. 하지만 홀로 나머지 음을 대해왔기에 견고한 내적 힘을 품고 있다. 위기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럴 때 의식의 태도가 중요하고 결정적임을 묘사하고 있다. 이것이 군자와 소인의 구분 기준이 되는 큰 과실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난다. 다음 해의 소출에 대한 선택인데 김석진은 “(깎여나가는 박괘의) 이와 같은 난세에 처한 궁박한 상황에서도 소인과 군자의 처세 결과는 다르다. 군자는 결국 거름이 되어 민생구제(民生救濟)의 대도(大道)를 펴게 되니 ‘수레를 얻는 상’이지만, 소인(小人)은 시류(時流)에 편승하여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사라지게 된다.”⁸⁸⁾고 하였다. 심리학적으로 무의식의 힘에 밀려 정신의 끝자리에 놓여있는 의식은 변환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태도를 취해야함을 의미할 수 있다. 이때 의식의 입장이 자아만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면 소인처럼 그 의식마저 놓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한다. 의식은 항상 무의식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초월적 기능에 입각한 새로운 의식적 태도로의 자리 이동을 인식함이 바람직하다.

빌헬름은 “여기에서 떨어져나감(剝)이 끝에 이른다. 불행이 지나가면 더 나은 때가 돌아온다. 선한 씨는 남아있고 열매가 땅에 떨어질 때 그 씨에서 다시 선한 싹이 돋아난다. 군자는 다시 영향력과 힘을 얻는다… 여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악은 선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악 자신도 파괴한다. 부정을 하면서만 사는 악은 그 자체의 힘만으로는 계속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인은 스스로 대인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잘 지낸다.”⁸⁹⁾

87) Huang A (2010): 앞의 책, p46.

88) 김석진 (2019): 앞의 책, p480.

89) Wilhelm R (1997): 앞의 책, p96.

고 하였다. 더 큰 정신을 받아들임이 생명 유지의 길이다. 일방성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대극의 것을 수용함이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된다.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도 동일하다. 그것은 마음 안에 부여받은 자연의 법칙인 무의식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한편 알프레드 황은 “그것(산지박괘 상구의 양효)은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유일하게 먹지 않는 열매이다. 왜냐하면 양효는 견고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상황을 변화시킨다(산지박괘 ䷗ 23의 상호인). 이 양효가 음효로 바뀌면 상호의 양 요소가 다섯 음효의 아래로 이동할 것이다. 새로운 주기인 지뢰복괘(復 ䷗ 24)가 시작된다. 빛과 진리는 마침내 어둠과 악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 단계를 가져온다.”⁹⁰⁾고 말한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도전괘의 관계인데 괘의 형상에서 보면 박괘와 복괘는 서로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 된다. 복괘의 뜻은 “양이 회복되고 군자가 회복되고 선한 본성이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⁹¹⁾ 심리학적으로 대극의 반전(enantiodromia)을 의미한다. 이것은 온전히 양 하나의 위치 변화에 따른 것인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의식의 태도에 전체 정신이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며 새로운 영역으로의 변환에 들어섬을 뜻한다. 그 출발의 배경은 곤괘 상호의 역동적인 모성적 무의식에 있다.

그러나 박괘에서 복괘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숨겨진 내용이 있다. 절기상으로 박괘는 음력 9월이고, 복괘는 음력 11월인데 그 중간에 곤괘가 놓여 음력 10월이다. 괘의 형상으로도 박(䷗)에서 곤(䷎)을 거쳐서 복(䷗)으로 간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극에 달한 의식의 내용(䷗)은 다시 모성인 무의식의 자리(䷎)에 들어섰다가 의식이 다시 회복(䷗)하는 흐름으로 감을 말한다. 이런 과정은 정신의 순환(circumambulation)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의식의 회복에는 다시 살려주는 어두운 재생의 모성적 무의식 단계를 거쳐야 한다.

동시에 모성의 무의식을 대표하는 곤괘 안에서도 의식의 회복에 연관되는 내용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곤괘 상호에서 건괘를 대표하는 용의 싸움에 대해 말한다. 음의 마지막에서 양을 상징하는 용이 등장함은 무의식의 극한 상황에서 의식과 연결됨을 뜻한다. 여기에서 《주역》 음양의 상호 순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분석심리학의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에 따른 지속적인

90) Huang A (2010): 앞의 책, p210.

91) 김석진 (2009): 앞의 책, p571.

의식의 생성과 맞물린다. 이런 흐름은 결국 의식으로 하여금 개성화 과정에 놓이게 만든다.

이 과정은 빛을 얻는 순환의 여정이다. 어둠인 어머니에서 빛인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주역》에서는 상징적으로 중지곤괘에서 일양괘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여기에는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변화하는 과정을 이끌었던 펠리칸의 희생이 담겨있다. 또한,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무의식에서 의식이 생겨남을 뜻하는데, 지금까지의 무의식 상태에 있던 상황을 자아의 전체 정신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그 상황을 새로운 의식의 내용이 되게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 이에 대한 체험을 누구보다 뚜렷하게 접한 융의 고백은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나이로비에서 아티(Arthi) 고원으로 가는 야생동물 보호처를 방문할 때의 일이었다. “그것은 태초의 어둠, 모성적 비밀이다. 그러므로 흑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엄청난 체험이, 아침의 태양의 출생인 것이다. 그것이 빛이 되는 순간, 그것은 신이다. 순간이 구원을 가져다준다. 그것은 순간의 원초적 체험이며 우리가 태양이 신이라고 생각할 때 그 순간의 체험은 이미 상실되고 망각되는 것이다... 사실은 자연의 밤보다도 전혀 다른 어둠이 그 땅을 짓누르고 있다. 그것은 정신적인 원초적인 밤이다. 헤아릴 수 없는 수백만 년을 언제나 그랬고 지금 또한 그러한 것과 같은 태초의 정신적 어둠, 빛에의 동경, 의식에의 동경인 것이 된다.”⁹²⁾ 의식인 빛을 상징하는 비괘는 모성적 무의식의 어둠인 곤괘에서 깨어나 자신의 가치를 드러낸다. 이것이 무의식 상태인 야생의 아프리카 초원이 융의 의식에 연결되면서 태고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다. 밤에서 빛을 만나기 위해 찾아 나서고 기다리는 것, 그것은 신화의 중심 주제인 밤의 여정(night sea journey)인데 그 열매를 우리는 《주역》의 일양오음괘의 흐름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의 양은 음이 되어 결국 모성적 무의식을 상징하는 곤괘로 돌아가 치유와 회복과 재생의 자리에 들어선다.

나가는 말

본 논문 주제를 비괘와 곤괘를 중심으로 정함에는 논자의 개인적인 의미가

92) Jaffe A(역음), 이부영(역) (2012): 《C. G. Jung의 회상, 꿈 그리고 사상》, 집문당, 서울, p339.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점의 결과가 나오에는 여러 가지 무의식의 배열이 있음은 분명하다. 이것은 이 주제가 논자 개인에 한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도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비괘와 곤괘를 통해 무의식은 이 글을 접하는 모두에게 그 의미를 되돌아보고 그것에 포함된 상징적 내용을 인식하고 실현시키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런 흐름에서 이 글은 지금, 이 상황에서 모두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것이다.

“비(比)’는 길하니, 처음 점을 하되 원(元)하고 영(永)하고 정(貞)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편안하지 못하여 바야흐로 오니, 뒤에 하면 대장부라도 흉할 것이다(比 吉하니 原筮 元永貞 无咎 不寧 方來 後 夫 凶). ‘서(筮)’라는 표현은 64괘 중에서 오직 두 곳에서만 나타나는데 산수몽괘(䷛ 4)와 수지비괘(䷇ 8)의 괘사에 있다… ‘서(筮)’는 대나무 가지로 점을 쳐 묻는 것이다.”⁹³⁾ 이것을 몽괘와 비괘에서 모두 같은 의미인 ‘처음 점하거든’이라고 이해한다. 두 괘 모두 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물(☵)에 관계된 괘가 『주역』을 시작하는 중천건괘(䷱ 1)와 중지곤괘(䷮ 2) 다음에 연이어 여섯 번을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수지비괘가 놓인다. 즉, “처음 점을 치기 시작하는(初筮 吉)”이 산수몽괘(䷛ 4)의 물(☵)로 시작하여 다시 동일하게 “처음 점(原筮)을 언급하는 수지비괘(䷇ 8)도 물(☵)과 관계되는 괘로 마친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점과 물은 상징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고, 《주역》을 여는 건곤괘에 이어 나오므로 물은 이 두 중심괘의 핵심적 가치를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치의 흐름이 비괘에서 정점을 이룬다고 짐작할 수 있다.

비괘는 물의 상징적 가치가 가장 건강하게 작용하여 의식이 그 정점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 의미는 비괘에서 유일한 양효인 오효의 자리에 있는 것과 연관이 된다. 즉, 이 양효는 의식의 작용을 나타내어 나머지 다섯 음효와의 관계가 중요함을 담고 있다. 이런 일양오음괘는 심리학적으로 하나의 의식과 다섯 무의식 사이의 역동을 표현한다. 유일한 양효로서 전체 음의 요소들과 맺어가는 양상이 초효에서 상효에 이르기까지의 그 하나인 양효의 진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지뢰복(䷲ 24), 지수사(䷆ 7), 지산겸(䷎ 15), 뇌지예(䷏ 16), 수지비(䷇ 8), 산지박(䷖ 23)으로 이어지는 《주역》의 흐름에서 땅 위에 있는 물, 아들을 품어주는 어머니, 모성적 무의식 안에 있는 아들 의식의 전개 과정

93) 김석진 (2019): 앞의 책, p169.

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안에는 필연적으로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역동이 형성되는데 이것 또한 이 여섯 일양오음괘의 표현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중지곤괘에서 이 여섯 개의 괘가 형성되듯이 어머니의 영역에서 아들이 나타남은 무의식에서 의식이 발현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겠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이 근친상간의 신화적 요소와 연결이 된다. 이 상징적 표현은 그 지향하는 바가 새로운 의식성의 획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자아 영역에서 스스로 무의식과의 융합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먹고 늘 새롭게 되는 우로보로스의 뱀과 연관된다. 우로보로스의 영원한 자기 회복과 발전의 이런 순환적인 정신의 개혁은 《주역》에서도 드러난다. 산지박괘(䷗)의 마지막 남은 양이 지뢰복괘(䷗)의 처음의 양으로 연결이 되고 부활이 되는 것과 아울러 모성의 대표적 상징인 중지곤괘(䷗)에서 그 끝머리의 경계선인 상호에서 용으로 표상되는 의식을 의미하는 중천건괘(䷗)로 순환되어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비괘의 오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무의식의 내용이 전체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의식이 출현하여 발전하다가 그 절정인 다섯 번째의 자리에 들어설 때 인식이 최고조에 달한다. 비괘 5효의 중정한 역할처럼 의식과 무의식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건강한 교류와 관계성을 가짐을 말한다. 중(中)을 지킨다는 것은 비괘 오효에서 표현된 것처럼 의식의 본능에 대한 적절한 수용과 활성화와 연결된다. 이것은 동시에 내향화와 함께 진행되는데 정신적 상황에 대한 해결은 결국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고 시작함을 아는 것에서 비롯함을 말한다. 비괘 오효를 축으로 하여 의식이 순환 발전하면서 새로운 의식성을 만들어나간다. 여기에 비괘 오효의 가치가 있다.

분석심리학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는 핵심적 개념이다. 이 둘 사이에서 무의식은 보상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 일양오음괘와 곤괘에서 드러난다. 일양오음괘들은 의식의 가치를 상징한다. 따라서 그 여섯 괘들의 흐름은 의식의 변화 과정을 나타내며 이에 동반하여 모성적 무의식인 곤괘도 그 양효에 따라 적절하게 협응한다. 이것이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의미한다. 동시에 그 역동은 비괘와 곤괘에서 그 정점을 이루고, 이어서 박괘에 이르러 재생과 순환을 위해 곤괘에 진입한다. 이것이 영웅이 모성의 영역

으로 들어가는 밤 바다 여정(night sea journey)에 해당한다. 이 내용들을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동양 옛 고인들의 정신이 담긴 《주역》에도 분석심리학의 관점이 맞닿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논문으로 의식의 참된 가치를 모성적 무의식의 표상인 곤괘와의 관계를 통해 배울 수 있었다. 분석심리학이 지렛대가 되어 고인들의 마음이 담긴 《주역》을 만나 그 풍요로운 정신이 살아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 고 문 헌

- 곽신환 (2006): “鶴山 李 正浩의 易學 思想”, 《동양철학》, 26. 서울.
- 권호용 (2017): “『주역(周易)』 구덕괘(九德卦)의 원의(原義) 분석”, 《동서철학연구》, 84. 서울.
- 김석진 (2019): 《새로 쓴 대산주역강의 1》, 대유학당, 서울.
- 김충열 (1997): “손 · 익괘의 논리와 교훈”, 《주역연구》, 2. 한국주역학회, 서울.
- _____ (1999): “역의 우주관, 성명관 그리고 문화관”, 《주역연구》, 3. 한국주역학회, 서울.
- _____ (2000): “伊川易이 오늘날 왜 필요한가?”, 《주역연구》, 5. 한국주역학회, 서울.
- 김학권 (2014): “이형상(李衡祥)의 일상적(日常的) 도덕규범(道德規範)으로서의 역학(易學)”, 《공자학》, 27. 서울.
- 신성수 (2005): 《주역통해》, 대학서림, 서울.
- _____ (2016): “주역의 미래예측(未來豫測)과 시공간 인식-분석심리학의 동시성이론과 관련하여-”, 《동방문화와 사상》, 1. 서울.
- _____ 이현구 (2013): “주역(周易)의 분석심리학적 이해-건괘(乾卦), 곤괘(坤卦)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31. 서울.
- _____ (2013): “주역과 분석심리학의 鍊金術-곤(困) · 정(井) · 혁(革) · 정(鼎)괘를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16. 양산.
- _____ (2014): “『주역(周易)』과 분석심리학의 원형(原型, Archetype)”, 《인문학연구》 26. 서울.
- _____ (2015): “분석심리학의 동시성원리와 『주역』의 통(通) 개념”, 《철학 · 사상 · 문화》 19. 서울.
- 이주현, 이부영 (2022): “주역 점(占)의 실체 체험-죽음, 신 그리고 사랑: 아버님의 영전(靈前)에서”, 《심성연구》, 37(2). 한국분석심리학회, 서울.
- 이진영 (2022): “주역 수지 비괘(水地比卦 ䷇)와 맹자 왕도 정치론의 관련성 연구-주역전의대전(周易傳義大全)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89. 서울.

- 이현구 (2016): “周易과 분석심리학의 상관성 연구-도의 실현과 개성화 과정을 중심으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 논문, 서울.
- 임명진 (2010): “『周易參同契』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대전.
- _____ (2005): “茶山易學의 의학적 응용에 대한 연구: 14벽卦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 학위 논문, 대전.
- 임채우 (2006): “陰陽관계론에서 본 여성관-男尊女卑論의 易學的 근거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84. 서울.
- 장영동 (2010): “周易에 나타나는 ‘물’과 ‘茶水’의 상관관계 研究”, 원광대학교 동양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익산.
- 허진웅, 조용준(역) (2012): 《중국문자학강의》, 고려대학교 출판부, 서울.
- _____ 홍희(역) (2003): 《중국고대사회》, 동문선, 서울.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 출판사, 서울.
- _____ (2000): 《한국문화 상징사전 2》, 두산동아 출판사, 서울.
- Abt T, 이유경(역) (2005): 《융 심리학적 그림해석》, 분석심리학연구소, 서울.
- Ad de Vries, Arthur de Vries (2004): *Elsevier's Dictionary of Symbols and Imagery*, Elsevier, Amsterdam.
- Edinger EF (1992): *Ego and Archetype*, Shambhala, Boulder.
- Huang A (2010): *The Complete I Ching*, Inner Traditions, Vermont.
- Jaffe A(역음), 이부영(역) (2012): 《C. G. Jung의 회상, 꿈 그리고 사상》, 집문당, 서울.
- Jung CG (1978): CW9-II, *A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89): CW11, *Psychology and Relig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83): CW13, *Alchemical Stud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89): CW14, *Mysterium Coniunction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85): CW16,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4): C.G. 융 기본저작집 제2권, 《원형과 무의식》, 솔출판사, 서울.
- _____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4): C.G. 융 기본저작집 제3권, 《인격과 전이》, 솔출판사, 서울.
- _____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2): C.G. 융 기본저작집 제5권,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솔출판사, 서울.
- _____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4): C.G. 융 기본저작집 제6권,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솔출판사, 서울.
- _____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6): C.G. 융 기본저작집 제8권,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출판사, 서울.
- _____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4): C.G. 융 기본저작집 제9권,

《인간과 문화》, 솔출판사, 서울.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역) (2018): 《민담의 심리학적 해석》, 한국융연구원, 서울.

_____ 김현진(역) (2019): 《창조신화》, 한국융연구원, 서울.

Wilhelm R (1997): *The I Ching or Book of Changes*, trans. by C. F. Bayn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Shim-Sŏng Yŏn-Gu 2023, 38 : 1

〈ABSTRACT〉

**Conjunction of Consciousness and
The Unconscious · Individuation and Circumambulation
of The Psyche: Focusing on the Hexagram Bi, Pi (比) and
Hexagram Gon, Kun (坤)**

Hyeon Gu Lee, Ph.D.*

Hexagram Bi (比 ䷇ 8) is one of the hexagrams comprised of one-unbroken line and five-broken lines. The hexagrams of one-unbroken and five-broken lines symbolize the relationship and dynamics between one yang-consciousness and the five-yin unconsciousness. The hexagram of one-unbroken line and five-broken lines has six different images depending on the position of the one unbroken line from the beginning line to the top line. In terms of psychology, this means that the position change of one yang line in relation to five yin lines may symbolize the function of consciousness which clarifies and determines the content of the psyche. In addition, the flow of psychic energy can be examined through the process of one unbroken line's movement. In other words, the psychic contents of the beginning line of hexagram Bok (復 ䷗ 24), which is the beginning of the hexagram of one-unbroken line and five-broken lines, proceed sequentially, and then arrive at the process of the last sixth, hexagram Bak (剝 ䷖ 23) through the fifth, the hexagram Bi (8).

That is, it can be said that the content of the hexagram and the lin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one unbroken line show a certain psychic flow. As a result, the first hexagram Bok (復 ䷗ 24), after recovering and starting newly, means the beginning of consciousness. After that the process of proceeding with the second, third, and fourth lines represents the flow of consciousness. And in the fifth place, the fifth line of hexagram Bi, it reaches its peak and is placed in the optimal state of consciousness because of its right

and centered position at this hexagram Bi.

Like nature, the psyche gradually enters the path of decline from the highest state, which leads to the last sixth, the top line of hexagram Bak. However, the top line of the hexagram Bak, where everything falls off, contains the content of starting again in its top line. It is the beginning line of hexagram Bok to inherit this. This means the circumambulation of the psyche that changes from a psychologically difficult state of depression to a stage of recovery.

There is a stage that must be passed in this circulation process, and that is the hexagram Gon (坤 ䷁ 2). October(tenth month)'s hexagram Gon is placed between hexagram Bak, the ninth month of the lunar calendar, and hexagram Bok, the eleventh month of the lunar calendar. This represents that the flow of recovery must go through a maternal process of hexagram Gon. The retreat to the psychological uterus is inevitable in regenerating the psyche. This process flows from the hexagram Bak and through hexagram Gon to the hexagram Bok. At this situation the hexagram Gon acts the absolutely necessary role.

In addition, the main body of the hexagrams of one-unbroken and five-broken lines, including the Bi hexagram, is also the Gon hexagram composed of six-broken lines. In other words, all six hexagrams of one-unbroken and five-broken lines have a certain relationship with the Gon hexagram, and it would be meaningful to look 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unbroken lines of the hexagrams of one-unbroken and five-broken lines and the corresponding broken lines of the hexagram Gon. This can be said to be the dynamics of the maternal unconscious connected to the state of consciousness in six forms. Therefore, each hexagram of one-unbroken and five-broken lines symbolizes the expression of the integration the mother archetype with the consciousness.

Revealing this well is the meaning of the hexagram of one-unbroken and five-broken lines. Its hexagram image consists of a combination of Gon (䷁), which symbolizes the mother, and the thunder (䷂) the eldest son, the water (䷜) the middle son and the mountain (䷓) the third son. As a result, the hexagram Bok (復 ䷗ 24), Sa (師 ䷆ 7), Gyeom (謙 ䷎ 15), Ye (豫 ䷏ 16), Bi (比 ䷇ 8) and Bak (剝 ䷖ 23) are sequentially created in the order of the unbroken line. This is symbolically the evolutionary process of consciousness. In this way, the hexagrams of one-unbroken and five-broken lines, which mean the conjunction of mother and son, represent the advancing relationship between the maternal unconscious and consciousness.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with the

mother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the son is related to the dynamics of mother archetype to the attitude of consciousness. The psychological meaning can be deduced from the flow of six lines of hexagrams of one-unbroken and five-broken lines. And the state in which the activation of the consciousness is at its peak is the fifth line of the hexagram Bi, and comparing it with the contents of the corresponding fifth line of hexagram Gon not only can find the state and meaning of the conjunction of consciousness and the maternal unconscious, but the entire flow can be compared to the individuation process.

KEYWORDS : Hexagram Bi; Individuation; Maternal unconscious;
Consciousness; Circumambulation of the psyche.

**Hyeon-Dong Analytical Psychology Center, Seoul, Korea*